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 경험 분석

연구책임자 : 은 주 희

공동연구원 : 임 고 운

김 선 미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사업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청소년부모의 존재를 알리고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두 해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 ‘청소년부모’는 정책의 의제가 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부모가정 지원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유미숙 대외협력국장 과 청소년미자립가정지원단체인 킹메이커 배보은 대표를 비롯한 여러분의 수고가 곳곳에 녹아들었습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2019년에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청소년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주거와 생계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2016년부터 진행한 민간주거지원의 경험에서부터, 2019년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진행한 청소년부모 주거인큐베이팅으로 확대된 과정을 정리하고 분석한 것입니다.

이번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경험 분석’은 현재 국내 주거지원정책을 망라하였으며, 주거지원의 구체적인 방식과 청소년부모의 현실에 근거한 지원 방향을 충실하게 제시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생생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 가치가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활용하는 후속 작업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연구를 위하여 밤낮으로 작업에 몰두한 은주희 책임연구원과 임고운 공동연구원님, 김선미 공동연구원님, 설문과 면담에 기꺼이 응해주신 청소년부모들 그리고 귀중한 연구에 아낌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아름다운재단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연구가 청소년부모 주거 문제를 개선·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주거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부모의 자립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오영나

【 연구 요약 】

- 본 연구는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사업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청소년부모는 24세 이하 청소년미혼모·미혼부, 청소년부부(사실혼, 법률혼)를 포함하며, 본 연구의 사례는 청소년부부와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였음
 - 사업과 대상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하여 주거지원담당자 면담 조사를 비롯하여, 청소년부모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음
 - 국내외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추진·실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음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청소년부모에게 국내의 주거정책에 따른 지원 및 기관 간 연계와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하여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별 입주자 조건의 유형이 다양하여 실제 청소년부모에게 적합한 제도를 안내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며 연계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음
 - 청소년부모는 관련 정보 접근에 더 취약한 대상이므로 정보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연계가 좀 더 요구됨

-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면담의 정성적·정량적 결과를 모두 포함하기 위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음
 - 2019년을 전후로 주거지원을 받은 10가구 사례(청소년미혼모 8가구, 청소년부부 2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분석 결과, 주거지원 이전과 이후의 영역으로 도출되었으며 그 하위영역은 총 13개, 이에 따른 범주는 총 44개가 도출되었음
 - 청소년부모의 응답 빈도에 따라 일반적, 전형적, 변동적 결과로 분석하여, 사례들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이해하고자 하였음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주거지원정책의 개선안을 비롯하여 청소년부모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주거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논의하였음

목 차

I.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II. 국내의 주거지원정책 현황	6
제 1 절 국내의 주거지원정책	6
1. 주거지원정책 개요	6
2. 청소년부모 유관 지원정책	9
제 2 절 청소년 대상 해외 주거지원정책	26
1. 영국	26
2. 캐나다	27
3. 미국	29
제 3 절 소결	31
III. 연구방법	35
제 1 절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주거지원사업 현황	35
1. 주거지원사업 개요	35
2. 주거지원 대상자	39
제 2 절 주거지원 경험의 분석 과정	42
1. 연구참여자 특성	42
2. 면담 절차 및 내용	43
3. 분석 방법	45
IV. 주거지원 경험의 분석 결과	47
제 1 절 주거지원 이전	48
1. 주거 환경	49

2. 가족 및 사회적 관계	52
3. 정서적 상태	56
4. 학업 및 경제적 상황	58
5. 주거탐색과정	62
제 2 절 주거지원 이후	68
1. 주거 환경의 변화	69
2. 정서적 상태와 주변관계의 변화	73
3. 경제적 상황의 변화	77
4. 새로운 장래 계획	79
5. 자녀 돌봄의 문제 지속	81
6. 사회적 불안	84
제 3 절 소결	86
V. 주거지원 담당자 면담 조사	89
제 1 절 조사 개요	89
제 2 절 조사 결과	91
1. 주거지원 대상자로서 청소년부모의 특성	91
2. 청소년부모 대상 주거지원의 의의	93
3. 청소년부모 대상 주거지원의 한계와 요구	98
제 3 절 소결	103
VI. 결론 및 제언	105
제 1 절 요약 및 결론	105
제 2 절 정책 제언	109
1. 기존 주거지원정책의 개선	109
2. 청소년부모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111
3. 주거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구축	112
참 고 문 헌	114

표 차 례

<표 II-1> 2020~2022 년 3 년간 지원이 시급한 핵심 대상 3 만 가구 추계	7
<표 II-2>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내용	10
<표 II-3>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
<표 II-4>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현황 및 계획	19
<표 II-5> 주거급여 선정기준(단위: 원)	20
<표 II-6> 가구원수별 및 급지별 기준임대료	21
<표 II-7> 주택 노후도에 따른 유지수선급여	21
<표 II-8> 기준중위소득 60%	22
<표 II-9> 서울형 주택바우처 월지급액	22
<표 III-1> 주거지원사업 내용	36
<표 III-2> 주거지원사업 내용 진행 과정	37
<표 III-3>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대상자 현황	40
<표 III-4> 연구참여자	42
<표 III-5> 심층면담의 주요 질문	44
<표 IV-1> 주거지원서비스 경험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47
<표 IV-2> 주거 환경 영역 교차분석 결과	49
<표 IV-3> 주거지원 이후 교차분석 결과	68
<표 V-1> 면담 주요 질문	90

그림 차례

[그림 I-1] 연구 절차	5
[그림 II-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8
[그림 II-2]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 절차	11
[그림 II-3] 국민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 절차	12
[그림 II-4] 행복주택 신청 및 입주 절차	13
[그림 II-5] 매입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 절차	13
[그림 II-6] 서울시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 절차	14
[그림 II-7]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 절차	16
[그림 II-8] 주거사다리지원사업 신청 절차	17
[그림 II-9] 주거급여 신청 절차	21
[그림 II-10]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절차	24
[그림 II-11] 청소년 주거우선모델의 지원서비스	29
[그림 III-1] 트라이앵글 사업 모형	35
[그림 III-2] 주거지원 과정	39
[그림 VI-1] 인큐베이팅하우스의 사례관리 과정	112

I.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주거는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요건이다. 주거는 살고 있는 ‘집’을 가리킴과 동시에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국립국어원, 2020). 따라서 주거는 주택보다는 광범위한 의미로서 집을 중심으로 한 삶, 또는 생활을 의미한다(한국주거학회, 2007). 이로 인해 주거는 인간이 누려야 할 국제 규약(ILO)과 헌법을 통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정해져 있으며,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이에 주거의 질적 수준은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누리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주거는 대다수에게 경제적·금전적 부담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지원 프로그램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31.2%)과, 전세자금 대출 지원(23.5%)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 2020). 또한 신혼부부의 가족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1순위)도 ‘주택 마련 등 주거 문제(37.6%)’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은 곧 주거의 불안정함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요소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거 마련은 이른 나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청소년부모(24세 이하)에게 더 어려움이 예상되는 복지서비스 영역이기도 하다.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2019년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집을 마련할 때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이 3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거주지의 형태가 월세인 경우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조사 대상 중 약 18%는 임신·출산기에 썸질방이나 모텔에서 임시 거주를 한 경험도 있었다. 이 같은 청소년부모 주거의 불안정성은 청소년부모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인 아동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청소년부모에게 주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그 어려움이 예상되는 요소로서 생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거는 주택에서 영위되는 가족의 일상적인 생활과 그들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감정을 담아내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배경이며 가족구성원의 자아실현의 장이 되기도 한다(주거환경교육연구회, 2010). 따라서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선행연구 중 국토연구원에서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 주거를 공급하고 참여자의 건강과 삶의 질의 정도를 분석한 바 있다(김혜승 외, 2012). 그 결과, 노숙인들이 안정적이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사실과 이러한 서비스가 기존의 타 사회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서비스임을 밝혔다. 또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수행한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효과성 연구’ (임세희 외, 2020)에서, 주거지원사업에 선정된 아동가구의 보호자(20명)와 아동(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을 시행한 결과, 주거 이전의 부적절한 환경 조건이 해소되면서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주거는 물리적 환경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별한 정서적·사회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며, 어린 시절에는 성장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Doyle, 1992). 이 때문에 청소년부모와 자녀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부모들은 낯설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청소년부부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입소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시설 이용을 꺼리고 있다(은주희·임고운, 2019). 이는 청소년부모가 향후 장기적으로 자립과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입소 지원이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에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주거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미혼모와 부부를 위하여, 2016년 이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주거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좀 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보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연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진행된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주거지원사업의 의미와 대상자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그동안 주거지원 대상자 중, 최근 2019년 이전의 대상자를

연구참여자로 하여 그들에 대한 주거지원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소년부모의 주거와 관련된 어려움 및 생활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따른 한계와 요구를 도출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질적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구성하며 해석하는 바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Merriam, 2009).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 제언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기관 사업의 방향과 방침을 고려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 중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미혼모·미혼부, 청소년부부(사실혼, 법률혼)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 기관에서 수행한 2019년 연구보고서에서 정의한 청소년부모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청소년부모에 대한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주거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좀 더 효과적인 후속 주거지원사업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부모 실제 주거지원 경험 사례를 분석하여, 주거지원의 의미와 효과를 대상자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주거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부모의 사례로서 청소년부부와 미혼모를 그 대상으로 한다.

셋째, 분석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지원정책의 효과적인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기관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사업을 심도 있게 이해함으로써, 이를 통해 청소년부모를 위한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 경험을 분석하여 그 효과와 한계를 탐색하고, 주거지원사업과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관련 문헌 연구를 비롯하여 면담 조사, 전문가 회의, 국내외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실행하는 관련 사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수행한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주거지원정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청소년부모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주거지원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10가구의 사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10가구는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로부터 주거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부모(미혼모, 부부)이다.

셋째,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주거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담당자 면담과 관련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면담 내용은 기관의 사업 방향과 그동안 진행된 사업 성과에 대한 논의 등이었다. 또한 청소년부모의 면담 조사 결과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보완하기 위하여 담당자의 의견과 경험에 대하여 면담하였다.

넷째,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국외 지원정책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 정책과 면담 대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하여 주거지원 개선과 정책 제언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부모를 위한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진행된 내용과 방법을 정리한 연구 절차는 다음 [그림 1-1]과 같다.

수행 절차	내 용	방 법
연구 방향 설정	연구 계획 수립	연구진-실무진 협의
▼		
정책 현황 분석	국내외 주거지원정책 분석, 관련 자료 수집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업 현황 이해	문헌 조사 및 자료 분석
▼		
자료 수집	연구참여자 선정 인터뷰 질문지 설계	연구진-실무진 협의, 전문가 자문 심층 인터뷰
▼		
자료 분석	인터뷰 분석 및 보완 결과 및 시사점 도출	인터뷰 전사코딩 합의적 질적 분석법
▼		
담당자 면담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업 현황 이해	담당자 인터뷰
▼		
종합분석	주거지원사업 성과 및 개선 방안 논의	연구진-실무진 협의, 전문가 자문
▼		
결론 도출	종합 결론 및 제언 도출	

[그림 1-1] 연구 절차

II. 국내외 주거지원정책 현황

본 장에서는 먼저 국내 주거복지정책 현황에 대해 개괄하고 청소년부모와 관련된 주거지원정책 및 최근의 주거지원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원한 해외 주거정책 사례를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제1절 국내의 주거지원정책

1. 주거지원정책 개요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시장 기제에 맡겨 온 역사가 길었던 만큼,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들어 저소득 빈곤계층의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사회성과 공공성보다는 개발과 건축이라는 공학적·기술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주택정책에서 주거복지는 기존의 시장 중심적 주택정책 외에 빈곤·저소득 계층 대상의 잔여적 프로그램을 지칭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거복지는 크게 두 갈래, 즉 공공영역의 임대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잔여적 프로그램으로서 주택공급정책 및 부대사업과 민간영역의 주거권 시민사회운동과 지역운동적 실천으로 이어져 왔다.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의 확산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으로 외환위기 이후 노숙인의 발생, 주거빈곤층의 확산이 두드러졌던 때이다. 이 시기의 주거복지정책에는 최저주거기준의 도입,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의 도입과 다양화가 도모되었다. 이후 정부에서는 이전 주거복지정책과 달리 시장 기제에 그것을 맡기는 정책을 주를 시행하다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주거취약계층 및 아동이 포함된 빈곤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을 다시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였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의 틀을 발표하였다. 주거복지로드맵의 목적을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삼고 있다. 신혼부부, 청년, 아

동을 포함한 가구, 주거취약계층, 고령자 등으로 정책 대상을 세분화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2018년 10월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방안, 2019년 10월 아동의 주거권 보장 강화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정부는 2019년에 들어서면서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대한 국가의 주거 보장 책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에 2019년 6월에는 보호대상 한부모의 경우에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보증금을 50% 이하로 책정하여 초기 진입의 용이성을 도모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주거 상황이 시급한 아동 포함 가구를 핵심 대상으로 하여 2020년부터 3년간 집중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다자녀가구(아동 2명 이상)를 별도 공급 유형으로 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기회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은 다음 <표 II-1>와 같다.

<표 II-1> 2020~2022년 3년간 지원이 시급한 핵심 대상 3만 가구 추계(단위: 명)

다자녀가구	1.1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택·저소득 유자녀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2자녀 이상 가구 중 공공임대 이주 희망 가구
보호종료아동 등	0.6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종료아동(연 2,600명)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기숙사, 가정 복귀 등 제외) 및 시설 소관부처가 추천한 홀로서기 청소년
비주택가구	1.3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주택 거주 무주택·저소득 가구 중 쪽방보다 좁은 곳(6.6㎡ 이하)에서 3년 이상 거주 및 공공임대 이주 희망 가구

출처: 국토교통부(2019).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청년

- 01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소형, 일자리 연계형 임대 25만실, 기숙사 5만 명
- 02 맞춤형 전월세 대출**
25세 미만도 전세대를 지원, 월세 대출 한도 확대
- 03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도입**
최고 연 3.3% + 청약 기능, 비과세
- 04 정보 교육 강화**
마이홈포털 기능 강화

신혼부부

- 01 임대주택 20만호**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예비 부부
- 02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시세 80%, 수요자가 분양·임대 선택
- 03 분양주택 특별공급 2배 확대**
국민·공공 15 → 30%, 민영 10 → 20%
- 04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구입) 1.70~2.75%, (전세) 1.2~2.1%

고령층

- 01 임대주택 5만호 공급**
무장애 설계, 복지서비스 연계
- 02 연금형 매입임대**
(LH)고령자 주택 매입 매각 → (고령자)연금 + 임대주택
- 03 주택 개보수 지원**
수선유지급여 추가 지원(50만원)

저소득·취약계층

- 01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02 주거급여 강화**
- 03 긴급지원주택 도입**
- 04 비주택 거주자 지원**
- 05 중증장애인 우선공급(지원)**
- 06 그룹홈 활성화**
- 07 빈곤 아동가구 지원**

출처: 2017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그림 II-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국토교통부, 2017)

2. 청소년부모 유관 지원정책

본 연구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부모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와 미혼부를 비롯하여 사실혼과 법률혼의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이다. 현재 이들을 명시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동포함가구, 신혼부부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정책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청소년부모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신혼부부 주거비지원 강화, 저소득·취약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강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그리고 청년층 대상 주거복지프로그램 등에 청소년부모가구가 대상자로 포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국내의 주거복지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청년과 아동이 포함된 가구와 관련된 주거지원 대책을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제도, 주거지원 관련 금융지원프로그램 등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공공임대주택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특별법」과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지원주택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공급 중인 임대주택 유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은 3가지 유형, 곧 건설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계약 체결 후 공급하는 매입형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는 임차형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기본으로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을 사용하는데, 임대주택별로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의 몇%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 순위가 달라진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 시장임대료의 30~90%의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는데, 장기전세를 제외한 임대주택 대부분은 일정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요구하며 거주기간 또한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재계약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액한다. 주택의 면적은 85 m^2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 <표 II-2>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표 11-2>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내용

구분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 전세	행복 주택	매입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
목적	최저 소득 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최초 복지주택	영구임대 중단 이후 건설	소득 4분위 이하 계층 주거안정	소득 6분위 이하 계층 주거안정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	최저 소득 계층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	최저 소득 계층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
임대 기간	50년		30년	20년	6년 20년	20년	20년
주택 규모	40m ² 이하	60m ² 이하			45m ² 이하	40m ² 이하	50m ² 이하
입주 자격	생계, 의료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등	철거지역 세입자 청약저축 ·가구소득 70%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70%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 수급자 등		수급자, 한부모,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50~120%	수급자, 한부모, 도시근로자가구소득 50~120%
임대 조건	시세 30%	시세 90%	시세 55~83%	시세 80%	시세 60~80%	시세 30~70%	지역별 지원상한금 차등
평균 임대보증금 ¹⁾	평균보증금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190만 원 수급가구 외: 650만 원	평균보증금 30㎡ 이하: 1,415만 원 30~40㎡: 1,878만 원 40~84㎡: 3,270만 원	평균보증금 29㎡: 1,800만 원 39㎡: 3,500만 원 49㎡: 5,000만 원 59㎡: 6,900만 원 평균임대료 29㎡ 이하: 17만 원 49㎡: 25만 원 59㎡: 31만 원 59㎡: 37만 원	인근 시세 80% 선	평균보증금 5,500만 원 평균임대료 30만 원	평균보증금 원룸형: 1,500만 원 다가구형: 1,800만 원 평균임대료 원룸형: 10만 원 다가구형: 19만 원	보증금지원한도 서울수도권 일반가구 호당 9,000만 원 신혼부부, 청년가구 호당 1,200만 원 입주자 부담 보증금 5% (가구상황별 차이 있음) 월임대료 기금이자의 2% 이하
평균 임대료	평균임대료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4.5만 원 수급자 외: 8만 원	평균임대료 30㎡ 이하: 15만 원 30~40㎡: 17만 원 40~84㎡: 20만 원					
임대 사업	LH공사, 지방공사						

(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 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영구임대주택은

1) 평균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공급하는 공사와 지역에 따라 평균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다르다.

1989년에 건설을 시작하였고, 당초 25만 호 공급이 목적이었으나 1991년 19만 호로 중단되었으며, 이후 매우 소량을 공급 중이다.

신청 자격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③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④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 ⑤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⑥ 북한이탈주민, ⑦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가구이다.

신청 자격 1순위에 수급 가구, 한부모 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포함되며, 우선 공급자로 신혼부부를 규정하고 있다(공급 물량의 10%)²⁾. 신청 및 입주 절차는 다음 [그림 II-2]와 같다.



[그림 II-2]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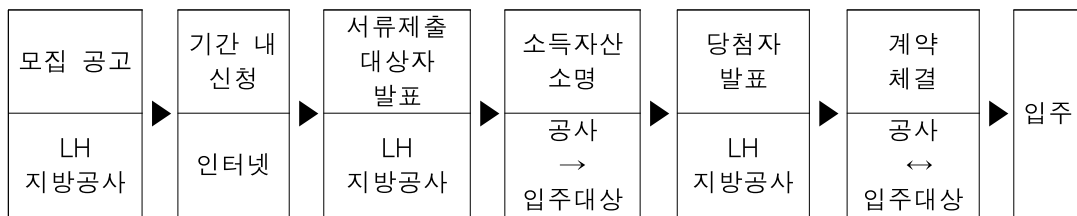
(2)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신청 자격은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가구의 경우는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의 100%이며,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

특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부여된다.

우선공급대상으로 ① 다자녀 가구 10% 범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②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0% 범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 및 입주 절차는 다음 [그림 II-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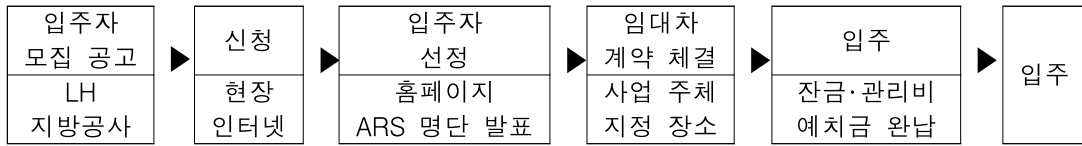


[그림 II-3] 국민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 절차

(3)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신청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7년 이내)가 해당된다. 특히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8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 기간은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거주 기간 20년이고, 그 외는 대상별로 상이하나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거주 기간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행복주택 공급은 젊은 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80%, 취약계층에 10%, 노인계층에 10%의 비율로 공급되고 있다. 신청 및 입주 절차는 다음 [그림 II-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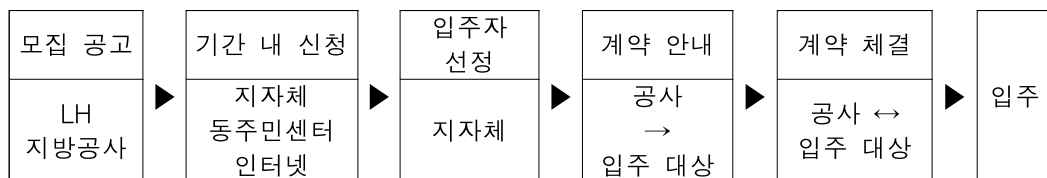


[그림 II-4] 행복주택 신청 및 입주 절차

(4)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매입임대주택은 일반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신청 자격은 ① 일반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가구, 주거급여수급가구, 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미달 혹은 RIR 30% 이상인 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인 자 등이다. ②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1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가 해당한다. ③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의 경우, I 형과 II 형으로 구분해 전자는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70% 이하(배우자의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혼인 10년 이내, 예비신혼, 13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또는 한부모(6세 이하)가구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에 해당하며, 후자는 부부 소득 100%(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는 120% 이하)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임대 기간은 유형별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일반매입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은 20년이며, 청년 및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은 최장 6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자녀가 있으면 최장 10년)이다. 신청 및 입주 절차는 다음 [그림 II-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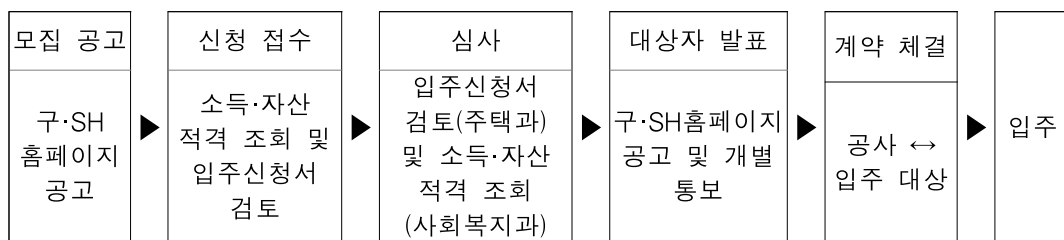


[그림 II-5] 매입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 절차

매입임대주택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공급이 가능하다. 서울특별시·SH와 자치구가 협약을 통해 도심 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하는 ‘서울시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활용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와 공사의 협의를 통해 주택공급 대상과 운영방식에 대한 협의를 가능하며 청년, 예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 중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공급을 수행하는 곳이 있다. 2015년부터 공급을 시작한 동작구의 한부모가구(모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자안심주택’이 그것이다. 신청 자격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 모자가족(이 주택은 공공원룸주택(전용면적 50㎡ 이하)으로 2인가구만 신청 가능)으로, 당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여야 하며, 1순위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만 9세 이하 모자가족), 2순위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만 10세 이상 18세 미만 모자가족)으로 규정하였다. 선정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에 입주자선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은 이후 적정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당초의 신청 자격이 2020년 4월 변경되어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①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정(조손, 다문화 모자 포함), ② 만 19세 이상(2001. 4. 13. 이전 출생자) 단독세대주인 여성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다. 신청 및 입주 절차는 다음 [그림 II-6]과 같다.



[그림 II-6] 서울시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 절차

(5)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전세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일정 기간 내 주택 물색을 신청 당사자가 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등 아동을 포함한 가구의 경우, 타 임대주택과 달리 수시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며 지역별 지원 한도액 역시 타 유형에 비해 높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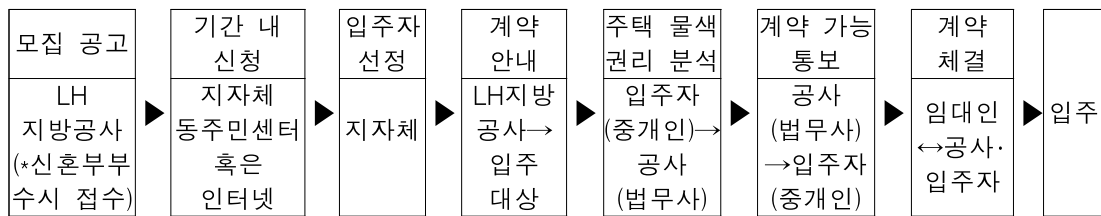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일반전세임대주택, 소년소녀가장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자격 기준은 전세임대주택 유형별로 다른데, 우선 일반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순위가 ①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② 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미달 혹은 RIR 30% 이상인 자 ③ 한부모가족, ④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혼인 7년 이내(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자녀 연령 13세 이하로 규정하고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I형), 100%(맞벌이 120%) 이하(II형)의 가구가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세임대주택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신청 당사자가 주택 물색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지역별로 전세금 지원 기준이 다르다. 일반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9,000만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7,000만 원, 기타 도 지역 6,000만 원 선이다. 신혼부부 I 유형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 원, 기타 도 지역 8,500만 원이며, 신혼부부 II 유형은 수도권 2억4,000만 원, 광역시 1억6,000만 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유형은 신혼부부 I 유형과 같다.

청년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해 대학 소재지 외 타지 시군 출신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해당하며, 1순위는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가구가, 2순위는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50%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 해당한다. 전세보증금의 5%는 본인부담금으로서(본인부담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2.5~5%이며 LH는 1순위의 경우에 본인부담보증금을 반감한 바 있다. 신혼부부 II 유형은 본인부담보증금이 20%이며 청년전세임대주택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규정한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

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되면서 청소년부모가구의 접근성이 높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이다.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혼부부전세임대 지원 자격을 완화하였는데, 자녀의 연령 조건을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했고, 다자녀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2인 초과 시 200만 원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소득 기준 또한 완화하여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I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II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임대 기간은 일반전세임대주택은 9회 혹은 20년, 신혼부부 I 유형은 9회 혹은 20년, 신혼부부 II 유형은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3회 혹은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 및 입주 절차는 다음 [그림 II-7]과 같다.



[그림 II-7]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 절차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주거사다리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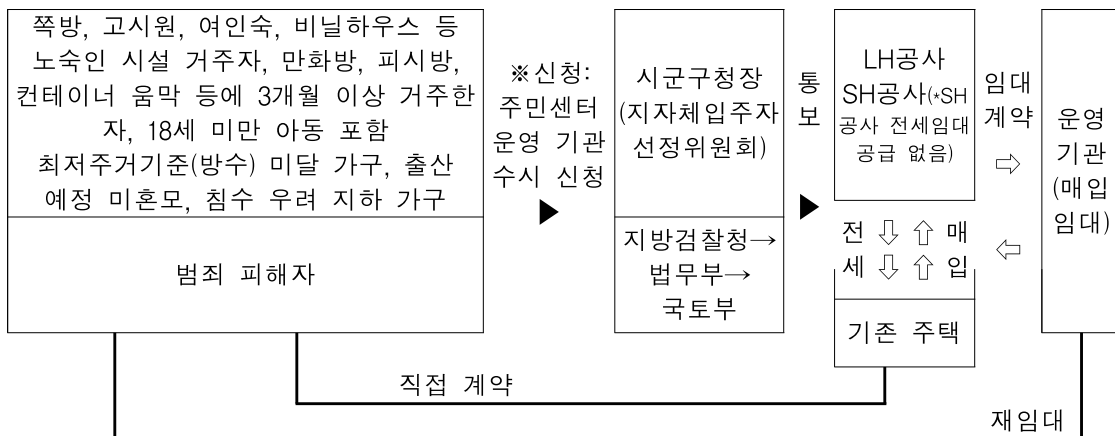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주거사다리지원사업)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건설·매입·전세임대사업이다(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신청 자격은 위 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라, ①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②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 미달 가구, ③ 범죄 피해자, ④ 가정폭력 피해자, ⑤ 출산 예정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한다.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의 50% 이

하이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상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2007년 해당 사업의 시행 시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 취약한 거처의 거주자를 입주 대상으로 규정한 것에서 출발하여 고시원 등 비주택,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처(용도별 방 수 미달에 한정)에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하는 가구’(2018년 3월), ‘PC방, 만화방,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인 미혼모 등’(2019년 7월), ‘반 지하 거주 가구’ 까지 포함되어 신청 대상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임대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는 50만 원,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경우는 1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과 같이 월임대료와 임대 기간, 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신청 절차는 [그림 II-8]과 같다.



[그림 II-8] 주거사다리지원사업 신청 절차

(7) 서울시 지원주택³⁾

지원주택은 육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 지원주택사업은 2010년대 초반부터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다. 목표했던 1000호 지원주택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지는 못하였지만,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제공 및 주거유지를 위해 2016년부터 만성노숙인(남성, 여성), 발달장애인, 노인 등에게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3) 민소영 외(2019). 「서울지 지원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서울특별시의회. 요약 참조.

2018년에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주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는데, 동법 제3조에는 ①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④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⑤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으로 지원주택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육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주택을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하였다. 또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하였다(동 조례 제1조와 제2조).

<표 II-3>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주택’이란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란 지원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입주 대상자 선정 및 지원) ①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선정기준과 절차, 우선순위 등 관련규정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
 - ② 시장·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입주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③ 시장 등 및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입주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이하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한다.
 1.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2. 주택시설관리 지원
 3.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4.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5.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6.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7.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서울시 지원주택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후 매입임대주택 소득의 자산기준, 무주택 기준에 부합 여부를 살펴본 후 지원(돌봄)서비스 욕구와 필요도에 대한 사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서비스 욕구에 따른 입주 적격성 사정은 대상 분야별로 사전에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심사기준을 근거로 대상자별 면접 심사를 거치게 하고 있다. 한편 SH는 지원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주택을 위한 주택공급은 서울시 주택정책과와 SH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입주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서비스 예산은 보건과 복지영역의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입주자 선정 이전에 지원주택 입주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현재까지는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예산에는 사례관리자의 인건비와 서비스 직접사업비가 포함되었다. 사례관리자의 담당 사례 수는 대상자 특성에 따라 그 비율을 상이하게 구성하고 있다. 각 단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지원주택 입주자 신청 공모, 신청 접수, 선정, 통보, 입주자와 임대 계약,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공모와 선정
- 서울시 관련 복지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기관과 업무협약, 보조금 지원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기관: 입주자 입주 지원, 사례관리, 퇴거 지원

<표 11-4>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현황 및 계획

구 분		소계	2018년 (시범)	2019년	2020. 7. 실적	2020. 8. 예정	2021년	2022년
확보 물량	소계	866	50	74	152	190	200	200
	노인	220		-	48	42	50	50
	장애인	278	8	16	44	70	70	70
	노숙인	318	38	42	60	58	60	60
	정신질환자	50	4	16	-	20	20	20
재고 물량		-	50	124	276	466	666	866

출처: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서울도시주택공사(2020). 청소년지원주택 도입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서울시는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에 따른 지원주택 공급 목표로 2022년까지 866호로 설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주택의 일정 비율(10%)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며, 이 중 다시 30%를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용도로 공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 이상을 지원주택으로 할당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청소년부모가구원은 ‘아동을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 이므로, 이들은 지원주택 조례상 규정된 대상자와 같이 ‘육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에 해당한다. 해당 가구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 청소년부모가구의 주거지원 대책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주거비지원 정책

(1)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통합급여였던 주거급여를 개별급여로 개편하면서 「주거급여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지역과 소득 기준, 가구원수, 점유 형태를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게 되는데(「주거급여법」 제1조와 제2조), 지원 대상은 수급(권)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이다(<표 II-5> 참조).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하였다.

<표 II-5> 주거급여 선정기준(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128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유지수선급여로서(현물) 집수리를 지원한다. 임차급여는 각 가구원수와 급지별로 기준임대료를 달리 하고 있으며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수급가구

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한다.

<표 II-6> 가구원수별 및 급지별 기준임대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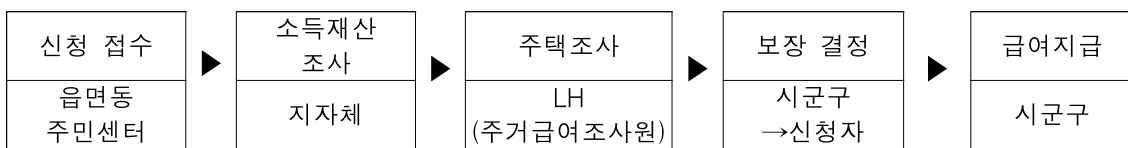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급지(서울)	26.6	30.2	35.9	41.5	42.9
2급지(경기·인천)	22.5	25.2	30.2	35.1	36.5
3급지(광역시)	17.9	19.8	23.6	27.4	28.5
4급지(그외)	15.8	17.4	20.9	23.9	24.9

유지수선급여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한도액 있음)을 추가로 설치한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표 II-7> 주택 노후도에 따른 유지수선급여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 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수선 주기	3년	5년	7년
수선 예시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 등	지붕, 욕실, 주방 등

주거급여 신청 절차는 [그림 II-9]와 같다.



[그림 II-9] 주거급여 신청 절차

(2) 서울형 주택바우처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의 프로그램이다. 특정바우처와 일반바우처, 두 종류가 있으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만 해당)로 일반주택 및 옥탑, 지하방 거주자, 고시원 거주자로 한정한다.⁴⁾ 그 외 전세전환가액 9,500만 원 이하 월세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표 II-8> 기준중위소득 60%(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액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지원 내용은 바우처 형식에 따라 다르며 일반바우처는 가구원수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면 지속적인 급여가 가능하다. 특수바우처는 1~2인 가구 12만 원, 3인 이상 가구 15만 원으로 지원 기간 1년(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매달 25일 지급), 생애 1회 지급 원칙을 두고 있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일반바우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특수바우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쪽방상담소 등의 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표 II-9> 서울형 주택바우처 월지급액(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지급액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105,000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20년 시행한 주거비지원사업이다(서울특별시 청년주거기본조례 제7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소득을 우선해 선발하며(1순위), 2,000만 원 이하(2순위), 5,000만 원 이하(3순위), 1억 원 이하로 그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 주거생계급여수급자, 서울시청년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월 20만 원을 최대 10개월 지원하며(총 200만 원, 실제임대료만 지원), 생애 1회로 한정한다. 신청은 신청 기간 내에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로 할 수 있다.

4) 유사한 형태의 비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쪽방은 제외되어 있어 거처 유형에 대한 논쟁이 있다.

3) 주택 관련 주요 금융지원 정책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가구의 증가를 감안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 대상은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다.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되며 순자산가액이 2억8,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한다. 대출금리는 우대형이 연 1.5%, 일반형이 연 2.5%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이다. 대출 신청은 신청 대상자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 내 우리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이 가능하다.

(2) 청년전용버팀목대출

청년전용버팀목대출은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전용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만 19~ 25세 미만 청년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8,000만 원 이하 무주택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가 해당된다.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 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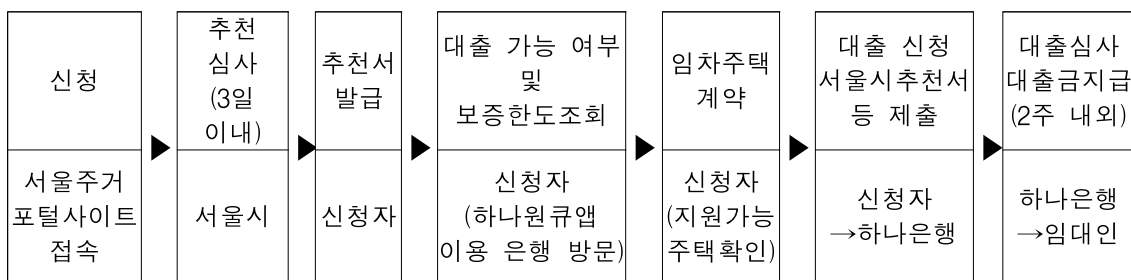
대출 가능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데,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3,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적용금리는 연 2.3~2.7%가 적용된다. 이는 소득수준 및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이다.

(3)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의 일

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만 19~39세의 청년으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근로청년은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과거 근로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인 자, 취업준비생은 근로청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모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자가 해당한다. 대출 취급 은행은 하나은행이며, 용자최대 한도는 최대 7,000만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으로 임차보증금의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은 서울시 내 위치한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월세 계약을 맺어야 한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하다. 서울시는 대출금 외에 은행대출금리 중 연 2.0%를 보존한다(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지원금리 = 최저 연 1.0%).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에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며,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까지 횡수 제한 없이 대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수시로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절차는 [그림 II-10]과 같다.



[그림 II-10]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용자지원사업 신청 절차

(4)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은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출산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혼인 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가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할 경우에도 재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해당한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서울시 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공공주택은 불가하다.

(5)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주거 상향 기반 구축을 위해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형 기능은 강화한 것이다. 이 사업은 청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등을 위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2017. 11. 29.)에 따라 시행된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2018. 7. 31. ~ 2018. 12. 31.에 가입한 경우에는 만 19~29세로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해당되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가입한 경우는 만 19~34세로(병역 기간 인정),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이며, ①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이고,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다만, ①, 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이면 가능하다.

제2절 청소년 대상 해외 주거지원정책

본 장에서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해외에서 실행 중인 주거지원사업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청소년 대상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는데,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포이어(Foyer)이다. 포이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990년부터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 그리고 북미 국가들로 널리 확산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사회적 문제인 주거 문제와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청년 노숙인이나 노숙 상태에 직면한 청소년을 돕기 위해 숙소(거처)와 각종 교육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경제적 자립과 독립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이를 통해 포이어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숙소(거처, 주택)의 제공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량과 기술을 갖추어 나갈 때까지 지원한다. 다양한 직업 훈련과 학업교육 그리고 취업과 고용 유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된 숙소(거처, 주택)를 기반으로 하여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자립을 총체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다음은 대표적인 국가별로 포이어가 어떤 기초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떤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1. 영국⁵⁾

브리스톨 포이어(Bristol Foyer)는 주택수당을 받을 수 없거나 민간주택 임대료가 어려운 젊은 청년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임시 주거를 마련해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때까지 중간주택(다중주택의 형태)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모델로 하여 현재 미국, 호주 등 영미권을 중심으로 주거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모델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모델은 16~25세의 단신 홈리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택 구조는 총 5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로비,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2층부터 숙소로 사용된다. 층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층으로 들어가는 문이나 실로 들어가는 문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입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각 방에는 내부

5)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5)의 2005 사회복지사 해외연수보고서 일부를 참고하였다.

전용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에서 내부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 가능하고, 별도의 공용세탁실과 침실 51개가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실무 스태프(수퍼바이저, 사례관리자 등) 1명이 거주자 13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6개월~2년이며, 입주 경로는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거나 혹은 직접 찾아오기도 한다. 입주를 위해서는 스태프와 인터뷰를 통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 입주가 성사된다.

입주 대상은 ① 16~25세 ② 홈리스(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부적절한 주거 환경에 놓인 경우) ③ 최소 2년간 심각한 범죄를 일으킨 경우가 없는 자 ④ 약물중독(관리될 수 있는 정도) ⑤ 정신장애(관리될 수 있는 정도) ⑥ 공동생활에 위험이 되는가 여부 ⑦ 스태프 2명이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선 ⑧ 인터뷰 당시 동기유발(열망)이 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주로 생활에 필요한 기술(요리, 청소 등)과 행정적인 일을 혼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안에서 상호관계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포이어는 최종적으로 홈리스 등의 청소년이 공공임대주택 혹은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교육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포이어에서 퇴거해 지역사회로 나갈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주택 및 생활유지를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하고, 지역사회 내 지역정착팀과 연계해 독립생활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2. 캐나다⁶⁾

HF4Y(Housing First For Youth) 프로그램은 홈리스청년에 대한 주거우선 프로그램이다. 홈리스 상태를 경험하거나 위험에 처한 청소년(만 13~24세)을 위하여 안전하고, 저렴하며, 주거 환경이 적절한 주택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건강, 복지서비스, 생활기술, 교육, 고용 부문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연령에 맞는 지원을 통해 홈리스 청소년이 사회에 통합되고 성인으로 건강한 전환을 촉진하도록 하

6)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주관한 청소년지원주택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중 정제형(2020)의 ‘청소년 지원주택의 필요성, 해외사례 및 법적 개정 방안’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내용을 추가, 보강하였다.

고 있다. 이는 권리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개입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HF4Y 원칙은 ① 전제조건 없는 주거권의 보장(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거 확보) ② 청소년의 선택, 청소년의 목소리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 ③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과 인간다운 삶 지향과 기간의 제한 없는 거주자 중심의 지원 ④ 사회포용 및 지역사회 통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원가정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리터닝홈(Returning home),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전환주택(Transitional housing) 모델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지원주택은 영국에서 발달한 모델로서 16~24세의 청소년을 지원하며, 생활기술훈련을 비롯해 육체적 건강 및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그 대상이 된다. 장기적인 거주와 단기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으로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개별 주택을 제공하며, 주택임대 서비스와 사례관리 서비스의 제공 조직이 동일하기도 하다.

전환주택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잘 개발된 주택모델로서 연령에 따른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이다.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공용주택에서의 생활로, 개별 침실을 두되 공용공간(공동 주방, 공동 거실)을 사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별도 개별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독립성 및 생활기술학습이 더 구조화된, 즉 노숙생활을 경험한 청소년에게 다중주택에서 긍정적인 동료 조성 환경을 제공한 후 독립생활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단, 이 주택의 운영에 있어서 인위적인 시간 제한은 지양한다. 중요한 것은 ‘준비가 되었는가’이다. 한편 청소년들이 다중주택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민간임대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요구된다. HF4Y 프로그램의 모든 지원 대상자의 최종 목표는 독립 거주이다. 그러나 주택우선 프로그램에서 시장이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매우 시장화된 주택시장과 불안정한 고용이 독립적인 주거 생활 유지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출처: Stephen Gaetz(2017). . THIS is Housing First for Youth: A Program Model Guide. Toronto: Canadian Observatory on Homelessness Press.

[그림 II-11] 청소년 주거우선모델의 지원서비스

3. 미국⁷⁾

미국의 첼시포이어(The Chelsea Foyer at the Christopher)는 영국의 Foyer Model을 벤치마킹해 만든 것으로, 주거불안정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나 홈리스 위기에 놓여있는 청년을 위한 전환주거프로그램(transitional housing program)이다. 2004년 Common Ground Community와 Good Shepherd Services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시작하였으며, 18~25세의 청소년 165명에게 2년의 전환주택과 더불어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 모델은 위탁가정과 같은 보호체계를 떠났거나 집이 없는 18~2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정된 주거 공간의 제공, 일상생활 훈련, 직업 탐색 및 훈련, 사후 보호 프로그램 등의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이들의 독립적인 성인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다만, 입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최소한 파트타임 직업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자립생활

7) Naude, A.(2009)의 ‘The Chelsea Foyer at the Christopher at Five Years: Lessons in developing stable housing and self-sufficiency for homeless youth and young exiting foster care’ 와 김소영 (2020)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미국 첼시 포이어(The Chelsea Foyer) 사업의 5년간의 성과와 교훈’ 일부를 재인용하였으며, 김성경 외(2019)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원주택의 구성요소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의 66-67쪽을 재인용하였다.

에 책임감을 갖도록 그들의 소득 중 약 30%의 임차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임차료는 개인소득의 5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 입주자의 지불가능성을 높여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주된 특징으로는 실무자와 입주자가 협업을 기반으로 하여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문서화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택제공관리 주체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동일하고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표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 2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직업훈련을 받아야 할 것, 월 2회 사례관리자를 만나야 하고 지역사회 생활기술 워크숍에 참가해야 할 것, 소득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프로그램비용(program fee)으로 매달 내야 할 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다. 뉴욕시의 경우, 매해 25,000명 정도가 보호종료가 되는데, 이 중 적어도 한 번 이상 홈리스 상태를 경험한 사람이 20~25%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첼시포이어에서는 독립주거시설(independent residence) 40개를 준비하였고, 지원주택(permanent supportive housing) 207개를 확보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첼시포이어 초기 5년간의 성과를 퇴소 시점의 주거상태와 고용상태로 측정한 결과, 입소 초기 상담 시 안정적 주거에 거주하던 비율이 2%에 불과하였는데 퇴소 이후 77%로 상승했고, 퇴소 시점에는 입주자 75%가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첼시포이어가 5년간의 사업 수행으로 성공적인 자립의 성과를 낸 데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영국포이어모델(the U.K. Foyer Model)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였고, 영국포이어연합(the U.K. Foyer Federation)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리고 공적 지원금(public assistance)을 거의 100% 받을 수 있었던 점이다. 또한, 홈리스 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자립 전환을 위해 강력한 실행 문화(strong practice culture)를 만들어 냈으며, 청년들의 생애 고용(lifetime employment)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개발(workplace development)한 것도 주요인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립의 위기를 극복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과의 동료멘토링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고, 마지막으로 저축 습관과 월세 지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여 실행한 점이 주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첼시포이어는 몇 가지 한계도 지적되었는데, 이는 재정적인 부족, 유연하지 못한 재정적인 지원, 입주자들 중 예상 외로 독립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

건강의 문제를 가진 입주자가 많았던 점과 그로 인한 비용 발생 그리고 퇴거 이후 청년들을 추적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제3절 소결

앞서 살펴본 국내 주거복지정책인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제도, 주거 관련 금융 프로그램의 최근 동향은 청년과 신혼부부, 아동을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새롭게 등장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의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에서는 앞서 살펴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주거지원정책의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대상자에 청소년이 포함된 정책이 있다. 즉 아동포함가구, 신혼부부가구,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그 대상자에 청소년이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정책이 확대일로를 밟고 있다. 예컨대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청 자격 중 자녀의 연령 조건을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다자녀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2인 초과 시 2,000만원 증액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소득 기준도 완화하여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I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II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 점은 청소년부모 포함 가구의 선택지를 넓혔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2018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처(용도별 방 수 미달에 한정)에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하는 가구’를 포함하고, 2019년 ‘PC방, 만화방,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인 미혼모가구 등’을 포괄하며, 최근 ‘반지하 거주가구’까지 확대한 것은, 현 정부가 가장 열악한 거처에 머물 수밖에 없는 가구, 특히 아동을 포함하고 있어 배려받아야 하는 가구에 대해 주거복지정책을 확대했다고 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⁸⁾에도 별도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러한 변화 추세를 볼

8) 서울시의 경우 SH공사를 통해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대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매입임대주택 유형 중 한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LH와 달리 임차보증금을 100만 원으로

때 청소년부부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⁹⁾ 그러나 청소년의 경제적·사회적 취약함을 고려한 정책은 두드러지지 않아,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청소년부모의 특수성(경제적·사회적 취약성)을 염두하고, 이들 가구에 적합한 주거 진입의 용이성(보증금)¹⁰⁾과 주거안정성을 담보하는 주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거비지원제도로 주거급여의 조건이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2018년 10월 이후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의 주거급여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이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은 수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동일 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1급지인 서울시의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보다 낮은 임차급여 상한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로 낮은 선정기준은 소득이 불안정한 청소년부모가구를 비롯한 저소득·빈곤 가구에 대한 주거비지원제도의 한계로 남아 있다.

셋째, 주거비지원제도와 더불어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금융지원대책이 속속 등장하였다. 청년청약저축, 청년버팀목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이 그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청년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소득 대비 과도

유지하고 있고, 기존 보증금을 100만 원으로 낮추면서 월임대료를 상승 조정해 입주자의 지불 가능성을 낮추기도 하였고, 공급 크기와 방 수가 가구원수와 맞지 않아 방수 미달이 있는 점, 특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점 등의 한계는 잔존하고 있다.

9) 다만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에는 50만 원인데 반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경우는 1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은 점은 청소년부부가구에 대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10) 청소년부모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경우에는 주거 진입 시 소요되는 자금, 요컨대 보증금 등의 지원을 요하게 된다. 현재 제도적 장치가 없어 민간의 재원을 활용(서울형임차보증금지원사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나는가장이다, 바보의나눔 등)을 통해 위기 가구에 대한 보증금을 확보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민간의 재원은 불확실성이 있어 공공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임대료를 낮추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부모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특히 일용직)에 종사함을 볼 때 주거 관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소액대출에 대한 무이자, 혹은 이자를 매우 낮추는 등 가구 상황에 맞는 대책이 촘촘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부모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는 최근 서울에서 도입한 지원주택이다. 2018년 시행된 서울시 지원주택은 현재 노인, 장애인(발달장애), 노숙인(정신질환, 알코올 의존자)을 대상으로 2020년 말까지 800여 호 공급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다. 지원주택은 간단히 말해서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를 대상으로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수반하는 주택이다. 청소년부모가구의 가구원 특징은 ‘아동을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이다. 이들은 서울시 지원주택조례상의 규정과 같이 ‘육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이며 부모 당사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해당 가구의 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가구이다. 따라서 해당 가구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즉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므로, 청소년부모가구의 주거지원 대책으로서 지원주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사업의 해외 사례로서 포이어(Foyer) 프로그램은 입주자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 주택(다중주택 혹은 독립된 주택)을 우선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주택에서 제공해야 하는 필요 서비스를 알게 해주었다. 포이어는 16~25세의 홈리스 상태이거나 홈리스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 거처를 제공해 그들이 거처에서 자기계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즉 학업 이행, 고용 능력 배양, 건강 회복과 더불어 잠재된 리더십 배양, 생활기술교육 등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의료서비스, 약물치료,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개인별 사례관리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 제공과 함께 수행되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홈리스청소년이 최종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부모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포괄되는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제도, 금융프로그램은 확대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청소년이라는 가구 상황에 보다 적합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부모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부모가구에 주택을 우선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과 동시에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도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 이에 최근 서울시에서 도입한 주거취약자 맞춤형으로 공급되는 ‘지원주택’의 입주 대상자에 청소년부모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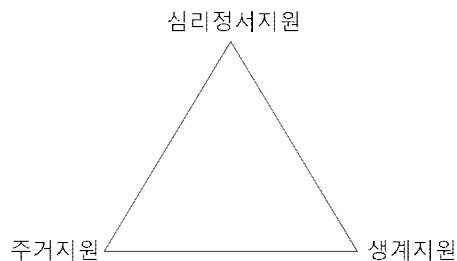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주거지원사업 대상자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주거지원사업 대상자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했던 면담 절차와 세부적인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제1절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주거지원사업 현황

1. 주거지원사업 개요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주거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진행된 트라이앵글 지원사업¹¹⁾에서 시작되었다. 트라이앵글은 심리·정서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이라는 3요소를 의미하며 안정된 기반을 중심으로 세 가지 요소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미혼모의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림 III-1] 트라이앵글 사업 모형

트라이앵글 사업은 2015년 초기 전문심리상담사에 의한 해결중심상담기법을 통해 미혼모·부와 청소년부모의 심리·정서지원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2017년 11월부터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사례관리 중심으로 그 접근을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주거지원’에 힘을 쏟게 되었다. 여기서 주거지원은 청약지원, 월세지원, 보증금지원으로 구성된다. 청약지원은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최소 자격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으로 주택

11) KDB 산업은행의 KDB나눔재단 지원으로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48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부와 청소년부부에게 상담과 지원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청약저축액을 지원하는 것이며, 월세지원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체납월세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증금지원은 사업참여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직접 소개하고, 그에 따른 입주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거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주거지원사업 내용

	지원 유형	지원 내용
주거 지원	청약지원	월 2~5만 원씩 6~10회 지원 금액은 대상자가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짐 2018년부터 최장 10회 지원으로 늘림
	월세지원	월 30만 원씩 2회 정도 지원 체납월세의 경우에는 최대 3회까지 지원
	보증금지원	가구당 100~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사례관리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이 중 ‘보증금지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00~6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1인 100만 원에서 2019년부터 3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억2,000만 원 보증금의 5%로 5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주거지원 대상자의 자기 재산 정도에 따라서 부족할 경우에는 외부 민간기관이나 지역행정기관에 신청서를 통하여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협력하여 진행한 사례로는 바보의나눔, 월드비전, 아름다운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킹메이커 등이 있었다. 대상자 형편에 따라서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등과 같은 방송을 통하여 ARS모금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로 2018년에는 외부 자원이 약 3,000만 원이 되었으며, 자체 사업 예산 중 주거보증금 지원에만 들어가는 금액 역시 약 3,000만 원이라는 점에서 총 6,0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주거지원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주거지원은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주기보다 전세임대주택 선정 후 계약서를 확인하여 LH와 같은 공공기관에 직접 보증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시급하게 주거지원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일 때 기관의 안내대로 기다렸다가 재문의율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재문의 시 지원 가능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정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만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의 본인부담금 중 100만 원을 기본 지원금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자 상황에 따라 타 기관 연계와 모금을 통해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재단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청소년부모가구에 주거보증금을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거주 공간이 시급한 경우에도 연계를 하는데, 주로 아름다운재단 사업을 컨소시엄으로 함께 하고 있는 청소년미자립가정 지원단체인 ‘킹메이커’의 ‘119 응급하우스’를 통해 우선 긴급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거지원을 받은 대상자로는 2015~2016년에 2건, 2017년에 1건, 2018년에 19건, 2019년에 18건이 있으며, 이 중 청소년부모가 2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대상자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주거지원사업 내용 진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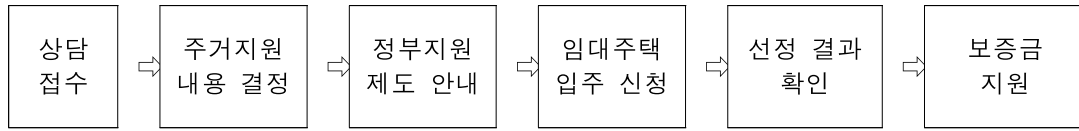
지원 시기	지원 종류	지원 실적	주요 내용 및 특이 사항	참고 사항
2015~2016년	긴급 지원	22	*물품지원, 긴급 지원, 출산 및 의료비지원 위주	*2015년 12월부터 사업 시작
	물품 지원	150		
	양육 지원	3		
	출산비 및 의료 지원	20		
	이사 지원	1		
	주거보증금 지원	2		
	월세 지원	1		
	청약 지원	51		
합계		250		
2017년	긴급 지원	24	*긴급 지원 및 물품지원 위주 (중복지원 포함) *청소년부모 보증금지원 시작	*주거안정 위한 임대주택제도 안내 *신청 후 선정 시 보증금지원
	물품 지원	10		
	양육 지원	0		
	의료 지원	6		
	이사 지원	0		
	주거보증금 지원	1		
	월세 지원	5		
	청약 지원	43		

합계		89		
2018년	긴급 지원	28	*청소년부모 보증금 본격 지원	*19건 임대보증금 100만 원 지원 *전세임대보증금 본인부담금 5%를 외부 신청서로 300~500만 원 지원 *임신부도 8개월 즈음부터는 임대주택 제도 안내 후 신청 독려, 선정 시 출산 전에 보증금 지원
	물품 지원	12		
	양육 지원	0		
	출산비 및 의료 지원	9		
	이사 지원	0		
	주거보증금 지원	19		
	월세 지원	2		
	청약 지원	21		
합계		91		
2019년	긴급 지원	43		*18건 임대보증금지 원 및 필요한 경우 5% 본인부담금 외부 신청서 통해 해결 *라디오방송 모금 등 적극적인 도움 *미혼부도 지원하기 시작 *사례관리 조건으로 보증금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
	물품 지원	2		
	양육 지원	0		
	출산 및 의료 지원	13		
	이사지원	0		
	주거보증금 지원	18		
	월세 지원	1		
	청약 지원	24		
	심리·정서적 지원	20		
	법률 지원	2		
합계		123		

2) 주거지원 과정

주거지원사업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우선 상담 접수가 시작되면 최소 30여 분간의 상담을 통해 주거상황을 파악하고 주거 전문 기관 담당자를 통하여 주거지원 내용이 결정된다. 가장 많은 문의 내용이 ‘보증금지원’에 해당하므로 정부의 지원제도를 안내한 후, 임대주택을 신청하게 하고,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에 알맞은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즉, 주거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실제 적절한 주거지를 찾고 입주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주거 전문 기관 담당자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3~6개월에 걸친 장기 컨설팅으로 그 과정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림 III-2]와 같다.



[그림 III-2] 주거지원 과정

이와 같이 단순히 보증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정부의 주거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정부 지원책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제도 안으로 사업참여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 밖에도 주거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관하여 법률 자문과 분유 및 출생신고 지원, 해비타트 집수리 등과 같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부모들이 안정된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주거지원 대상자

주거지원 대상자는 성인 미혼모와 청소년부모를 포괄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지원받는 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청소년부모 중에서 ‘청소년 미혼모 및 부부’에 해당하며, 이들은 48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가리킨다.

주거지원 대상자로서 청소년 미혼모 및 부부들은 처음부터 주거지원을 문의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을 문의하다가 주거지원 대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비싼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주거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 제3, 4금융권을 통한 대포통장으로 빚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거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선정 과정보다는 상담을 통해 주거지원이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시급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 거주지의 계약 만료 시점이나 계약 상황 등이 그 기준이 된다. 즉, 임대주택을 신청해도 되는 상황인지, 선정 후 바로 입주가 가능한 상황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주거지원은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주기보다 전세임대주택 선정 후 계약서를

확인하여 LH와 같은 공공기관에 직접 보증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시급하게 주거지원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일 때 기관의 안내대로 기다렸다가 재문의율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재문의 시 지원 가능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정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만들지 않는다. 지금까지 주거지원을 받은 대상자로는 2015~2016년에 2건, 2017년에 1건, 2018년에 19건, 2019년에 18건이 있으며, 이 중 청소년부모가 2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거지원 대상자가 되었던 청소년부모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대상자 현황

지원 연도	No	대상자 특성	나이	거주지	지원 내용
2017	1	청소년부부 (사실혼)	18, 19세	인천	총보증금 300만 원 중 100만 원 지원, 200만 원은 킹메이커에서 부담 킹메이커 연계 민간임대주택(사용대차) 입주
2018	2	청소년미혼모	21세	인천	LH전세임대 안내 및 당첨 5,000만 원 보증금, 본인부담금 250만 원 중 100만 원 지원
	3	청소년미혼모	21세	충북	보증금 100만 원
	4	청소년미혼모	22세	서울	LH전세임대 안내 및 당첨 6,500만 원 보증금 중 100만 원 지원
	5	청소년미혼모	21세	수원	보증금 100만 원 지원, 러브더월드 협력 100만 원 보증금, 6개월 월세, 러브더월드 선납 228만 원
	6	청소년미혼모	21세	대전	LH전세임대 안내 및 당첨 7,000만 원 보증금, 본인부담금 350만 원 중 100만 원 지원
	7	청소년미혼모	24세	대전	LH전세임대 안내 및 당첨 6,500만 원 보증금, 본인부담금 325만 원 중 100만 원 지원
	2019	8	청소년미혼모	19세	강원
9		청소년미혼모	21세	경기	보증금 100만 원 지원 러브더월드 협력 100만 원 보증금, 6개월 월세 러브더월드 선납 228만 원

지원 연도	No	대상자 특성	나이	거주 지	지원내용
2019	10	청소년미혼모	18세	강원	LH전세임대 안내 및 당첨 보증금 100만 원 지원 기초생계비 25만 원 지원
	11	청소년부부	각 19세	인천	보증금 300만 원 지원, 킹메이커, 아름다운재단 협력 민간임대
	12	청소년미혼모	21세	서울	LH전세임대 안내 및 당첨 1억2000만 원 보증금 / 19만 원 월세, 본인부담 600만 원 중 100만 원 지원
	13	청소년미혼모	19세	울산	LH전세임대 안내 및 당첨 보증금 100만 원 지원 후 2020년 9,000만 원 보증금, 본인부담 금 450만 원 지원-방송연계(방송 모 금액 3,077만2,313원 수술비 등)-임신 당시 지원 후 추가 지원
	14	청소년미혼모	21세	대구	LH전세임대 안내 및 당첨 4,500만 원 보증금 / 6만 원 월세, 본 인부담금 225만 원 중 100만 원 지원 (임신 상태 지원)
	15	청소년미혼모	18세	인천	LH전세임대 안내 및 당첨 5,000만 원 보증금, 본인부담금 250만 원 중 100만 원 지원
	16	청소년부부	17, 18세	강원	LH전세임대 안내 및 당첨 보증금 100만 원 지원
	17	청소년미혼모	22세	전북	LH전세임대 5,000만 원 보증금, 본인 부담금 250만 원 중 65만 원 지원
	18	청소년미혼모	22세	서울	LH전세임대 안내 및 당첨 1억2,000만 원 보증금 / 25만 원 월세 중 300만 원 지원, 나머지 금액은 성 동복지관 사례관리로 연계
	19	청소년미혼모	21세	서울	LH전세임대 안내 및 당첨 1억2,000만 원 보증금, 300만 원 지원
	20	청소년미혼모	20세	인천	300만 원 보증금 / 35만 원 월세 중 보증금 300만 원 지원, 킹메이커, 아름다운재단 협력 민간임대
	21	청소년부부	19세	인천	500만 원 보증금 / 40만 원 월세 중 보증금 300만 원 지원, 킹메이커, 아름다운재단 협력 민간임대(임신 상 태에서 지원)
	22	청소년미혼모	23세	전주	민간임대 100만 원 보증금 / 20만 원 월세 중 보증금 100만 원 지원(임신 상태에서 지원)
	23	청소년미혼모	22세	경기	7,000만 원 보증금 중 350만 원 지원, 바보의나눔 연계 400만 원, 가톨릭방 송 연계 409만9,500원(가전, 가구 등 사 용)
24	청소년미혼모	23세	충북	6,000만 원 보증금 / 7만1,250원 월세 중 바보의나눔 연계 300만 원 보증금 지원, 100만 원 생계비 지원	

본 연구에서는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주거지원 경험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합의적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는데, 합의적 질적연구방법은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 각각의 장점을 채택하여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합의 과정을 통해 모든 사례를 수치화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2012). 이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특성과 면담 과정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절 주거지원 경험의 분석 과정

1. 연구참여자 특성

연구참여자는 목적 표집의 방법으로 선정되었다. 대상자는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주거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부모 10가구로, 청소년미혼모 8가구와 청소년부부 2가구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세부 사항은 다음 <표 III-4>와 같으며, 주거비(보증금) 지원 내역과 함께 긴급하게 주거 공간을 지원받은 경우도 명시하였다.

<표 III-4> 연구참여자

사례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자녀 연령	최종 학력	주거비 지원 내역
A	여	22세	인천	4세	중학교 졸업	보증금 450만 원
B	여	23세	충북	2세	전문대 졸업	보증금 400만 원
C	여	21세	서울	4세	전문대 재학 중	보증금 100만 원
D	여	23세	서울	3세	고졸 검정고시	보증금 300만 원
E	여	25세	서울	5세	고등학교 졸업	보증금 100만 원
F	여	22세	대구	2세	고졸 검정고시	보증금 300만 원
G	여	21세	서울	2세	고졸 검정고시	보증금 400만 원
H	여	23세	경기	6세	고졸 검정고시	보증금 1,000만 원
I	여	19세	인천	1세	고졸 검정고시	보증금 300만 원 (킹메이커의 긴급주거지원)
	남	19세			중학교 졸업	
J	여	20세	인천	1세	대학교 중퇴	보증금 300만 원 (킹메이커의 긴급주거지원)
	남	20세			고등학교 졸업	

연구참여자는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기관 담당자로부터 주거지원을 받은 지 최소

6개월 이상인 대상자를 추천받은 후, 담당자가 직접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이들로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 4가구, 인천 3가구, 경기 1가구, 대구 1가구, 충북 1가구로, 총 10가구가 면담에 참여하였다.

2. 면담 절차 및 내용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 면담을 통해 기관으로부터 파악된 정보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면담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였다. 심층 인터뷰의 질문은 반구조화된 면담 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면담은 1인당 1회를 기본으로 하고 2명의 연구자가 몫을 나누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참여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참여자의 거주지 근처로 이동하여 카페나 병원 등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실시하기 전, 연구 참여 동의서를 통해 연구의 방향과 면담 참여 절차 및 연구 윤리를 다시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고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기로 녹음하였다. 또한 면담과 관련된 사례비를 지급함으로써 면담 참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였다. 1차 인터뷰에서 보완할 내용은 추후 유선 통화나 문자 메시지로 2차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면담의 목적은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을 받기 전과 후의 삶의 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면담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임신·출산기의 주거 경험, 주거지원을 통한 현재 주거지에서의 경험 및 주거지 변화를 통한 계획의 변화 등을 알아보았다. 면담의 주요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심층 면담의 주요 질문

구분	주요 질문
임신 상황 및 양육 경험	원가족 및 현재 함께 거주 중인 가족은 누구인가요?
	당시 원래 가족들과 관계는 어떠했나요?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임신 중, 출산 당시에 생활(거주)했던 곳과 상황은 어떠했나요?
	당시 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도움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현재 주거 여건 및 주거 지원 과정	현재 거주지에서의 거주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으며,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현재 거주지의 주택형태(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기타), 소유형태(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임대료)는 어떠합니까?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거는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보증금 마련, 주택 물색 등)
	기관 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주거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함께 도움이 되었거나 곤란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주거지원을 위한 상담과정에서 기관 담당자들과의 경험은 어떠했습니까? ·기관 서비스를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거지원을 받기 위하여 다른 기관(동주민센터나 구청, 기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택 정보(임대 정보 등)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현재 주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의 주거지가 안정적인 곳이 되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거 지원 이후 변화 와 어려 움	현재 사는 집을 마련하고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곳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 본인이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변화는 어떠합니까?
	- 부모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부부 및 자녀와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다면, 어떠합니까?
	친구 또는 주변 사람들(어떤 사람)과 관계나 생활의 변화는 어떠합니까?
	- 현재 거주를 위한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주거지원을 받기 전 주거비와 현재 주거비의 차이는 어떠합니까?
	- 현재 부부는 주거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나요? 신청 당시 행정기관(담당자)의 안내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현재 소득과 지출 상황(생계비, 양육비 등)은 어떠합니까? - 주거지원 이전과 이후 소득과 지출의 변동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 때문입니까?
향후 계획	학업이나 직장생활(취업)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장래 계획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본인이 주거지원사업 담당자라면 청소년부부 대상 지원 관련해서 더 개선되거나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향후의 목표나 계획은 무엇입니까? 목표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른 부모로서 자신들의 어려움과 계획을 의논하는 대상이 있는지요?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요?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면담 수행 시 모든 자료를 면담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기로 녹음을 하였다. 면담 내용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하여 모든 녹음 내용을 Microsoft word로 전사하였다. 전사한 내용은 합의적 질적분석방법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초기 코딩은 연구자 2인이 각각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메모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먼저 분석 영역을 설정하였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을 통한 경험 분석인 것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주거지원을 받기 전 경험, 주거지원을 받은 이후의 경험의 변화를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진 개인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진은 각자 사례를 읽고, 의미 있는 반응 내용에 개념을 부여하고 하위 영역과 범주를 추출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개념, 하위 영역, 범주화 작업을 한 후 다시 함께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개인별 분석이 끝난 후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사례별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사례에서 도출된 하위 영역을 몇 사례가 공유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범주들은 연구자 2인이 각각 분석한 이후 분석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상호 검토하며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자료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역, 범주, 하위범주별 사례 내용을 분류하면서 각 범주에 대한 총 빈도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Hill(2012)이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사례 전체 및 한 사례를 제외하고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는 범주를 ‘일반적(general)’, 절반 이상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전형적(typical)’, 마지막으로 절반 미만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변동적(variant)’으로 분류하여 표기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례 수가 10개로 제한되고, 대상자의 특수성에 따라 각 하위범주에서 그 빈도수가 적더라도 독특한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9~10개를 ‘일반적’ 범주로, 5~8개를 ‘전형적’ 범주로, 1~4개를 ‘변동적’ 범주로 분류하였다. 모든 사례를 포함하여 실시된 교차분석 결과를 비교하였고, 두 분석 결과 간의 차이가 없음을 통해 이 연구의 교차분석 결과가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연구진은 합의된 교차분석 결과를 평정자에게 알리고 범주 분류에 대해 검토를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주거지원 이전의 경험과 이후의

경험, 두 가지로 조절하기로 하고 주거지원의 한계로 구분된 영역을 다른 하위 영역으로 재편 및 조절하는 과정을 가졌다. 평정자는 이 결과를 감수자에게 알리고 감수자는 평정자에게 다시 피드백을 하였으며, 연구진은 이러한 교차분석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며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IV. 주거지원 경험의 분석 결과

원 자료의 영역분석 결과,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 경험은 ‘주거지원 이전’, ‘주거지원 이후의 변화’ 라는 총 2개의 영역이 도출되었다. 2개 영역에 대한 하위 영역은 총 11개, 범주는 총 43개가 도출되었다. 빈도는 각 항목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사례의 빈도가 사례 전체 및 한 사례를 제외하고 모든 사례(9-10개)에서 나타나는 범주를 ‘일반적(general)’, 5개 이상에서 나타나는 경우(5-8개)를 ‘전형적(typical)’, 마지막으로 50% 미만의 사례(1-4개)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변동적(variant)’ 으로 분류하여 표기하였다.

먼저, 주거지원 이전의 경험영역에서는 ① 주거 환경, ② 가족 및 사회적 관계, ③ 정서적 상태, ④ 학업 및 경제적 상황, ⑤ 주거탐색과정과 관련한 영역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주거지원 이후의 경험영역에서는 ① 주거 환경의 변화, ② 정서적 상태와 주변 환경의 변화, ③ 경제적 상황의 변화, ④ 장래 계획의 변화, ⑤ 자녀 돌봄의 문제 지속, ⑥ 사회적 불안 영역이 도출되었다. 이상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주거지원서비스 경험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영역	하위영역	범주	빈도	유형
주거 지원 이전	1. 주거 환경	임신 및 출산기 주거지의 불안정	9	일반적
		좁고 비위생적인 원룸생활	6	전형적
		자녀 친부와 동거 시작	4	변동적
	2.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원가족과 소원한 관계	6	전형적
		자녀 친부와 이별	5	전형적
		임신과 양육에 대한 부정적 반응	4	변동적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모의 지지	3	변동적
		가족 간 자녀 양육관 갈등	1	변동적
		이웃과 소통 단절	1	변동적
		양육 책임감 느낌	4	변동적
	3. 정서적 상태	양육 우울증 느낌	2	변동적
		주거비 마련의 어려움	6	전형적
	4. 학업 및 경제적 상황	생계비 해결의 어려움	5	전형적
		단기 계약직 생활	4	변동적
		학업의 중단	4	변동적

	5. 주거탐색과정	학업의 지속	2	변동적
		인터넷 검색	10	일반적
		기관 문의(지자체, 민간기관, 부동산)	10	일반적
		지인 활용	3	변동적
		주거 가치 확립	4	변동적
		행정기관의 역량부족	3	변동적
		임대주택 정보 부족	2	변동적
주거 지원 이후	1. 주거 환경의 변화	넓고 깨끗한 거주 공간	9	일반적
		안정된 거주 기간	5	전형적
		친아동적 양육 환경	3	변동적
		반려동물과 거주	3	변동적
		일과 양육의 병행	3	변동적
		안전한 양육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임대주택	8	전형적
	2. 정서적 상태와 주변 관계의 변화	심리적 안정감	9	일반적
		사회적 관계의 회복	8	전형적
		양육 책임감 강화	5	전형적
		애정적 양육 태도로의 전환	3	변동적
		청결한 환경 유지 욕구	1	변동적
	3. 경제적 상황의 변화	생활비 지출의 증가	10	일반적
		주거비 지출의 안정	7	전형적
	4. 장래 계획의 변화	직업 및 취업에 대한 희망	7	전형적
		주거 마련 의지	5	전형적
		학업 지속 의지	4	변동적
	5. 자녀 돌봄의 문제 지속	경제적 어려움의 지속	6	전형적
		취업의 제약	5	전형적
		부모 역할 지원 부재	4	변동적
	6. 사회적 불안	불편한 사회적 시선	4	변동적
		원가족과 관계 회복의 제약	2	변동적

제1절 주거지원 이전

주거지원 이전의 경험영역은 ① 주거 환경, ② 가족 및 사회적 관계, ③ 정서적 상태, ④ 학업 및 경제적 상황, ⑤ 주거탐색과정과 관련된 하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주거지원 이전 경험영역에서는 총 5개의 하위 영역에서 2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IV-2>와 같다.

<표 IV-2> 주거 환경 영역 교차분석 결과

하위영역	범주	빈도	유형
1. 주거 환경	임신 및 출산기 주거지의 불안정	9	일반적
	좁고 비위생적인 원룸생활	6	전형적
	자녀 친부와 동거 시작	4	변동적
2.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원가족과 소원한 관계	6	전형적
	자녀 친부와 이별	5	전형적
	임신과 양육에 대한 부정적 반응	4	변동적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모의 지지	3	변동적
	가족 간 자녀 양육관 갈등	1	변동적
	이웃과 소통 단절	1	변동적
3. 정서적 상태	양육 책임감 느낌	4	변동적
	양육 우울증 느낌	2	변동적
4. 학업 및 경제적 상황	주거비 마련의 어려움	6	전형적
	생계비 해결의 어려움	5	전형적
	단기 계약직 생활	4	변동적
	학업의 중단	4	변동적
	학업의 지속	2	변동적
5. 주거탐색과정	인터넷 검색	10	일반적
	기관 문의(지자체, 민간기관, 부동산)	10	일반적
	지인 활용	3	변동적
	주거 가치 확립	4	변동적
	행정기관의 역량부족	3	변동적
	임대주택 정보 부족	2	변동적

1. 주거 환경

청소년부모는 주거지원을 받기 이전, 임신·출산기의 주거지가 불안정하고(일반적9), 좁고 비위생적인 원룸생활을 한 경험이 있기도 하였다(전형적6). 또한 미혼모의 경우에는 자녀 친부와 동거를 시작(변동적4)한 경우도 있었다.

1) 임신·출산기의 주거지 불안정(일반적9)

주거 환경에 대해서 연구참여자들은 임신·출산기에 주거지에 대한 불안정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총 9개 사례가 진술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주거를 마련하기 전 임신·출산기에 겪는 일반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부모가 원가족의 집

에 머무르기 어려운 경우에 이들 대부분은 미혼모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부모들은 타인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신과 아이의 개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불편으로 인해 계속 거주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시설에 장기간 머무르지 못하고 퇴소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공동생활을 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냥 안 맞기도 하고. 게다가 또 애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그것도 둘이나. 그 당시에 애들도 거기에 적응을 못 했거든요, 그 집에. 밤마다 울고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고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랑도 원만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이것저것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례 C)

(미혼모시설에 3개월 있다가 나왔는데) 되게 힘들어서 간 거였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 언니 중에 1명이랑 트러블이 심해 가지고, 아무래도 언니가 저보다 먼저, 한 6개월 정도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언니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도 안 받아서 언니밖에 없어서 혼자 지내셨는데 언니는 이제 저희가 들어온 게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있고 싶다고 해서, 방이 따로따로 있는데도요. (사례 G)

게다가 임신부에게는 시설에서 타인과의 갈등, 공동생활의 불편함이 당장의 거주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욕구를 제한받는 일이 되기도 했다.

막 임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이것저것 많이 땡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녁에 뭘 먹고 싶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 힘들었었고. (사례 H)

2) 좁고 비위생적인 원룸 생활(전형적6)

시설을 나와 거주하거나 원가족의 집에서 독립하여 자녀와 함께 살 거주지를 따로 마련하는 경우, 청소년부모들은 대개 원룸을 자신의 거주지로 마련하게 된다. 이는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의 원룸은 대체로 자녀와 생활하기 좁고 비생위적인 경우가 많았다. 총 6개 사례가 이러한 경험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빌라긴 한데 막 너무 오래돼서 벌레도 많이 나왔었고 좀 불편하긴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작게 이제 시작하다가 좋은 데 이사 가면 된다고 해서 그냥 참고 살았어요. 그게 완전 옛날 빌라라서 좀 작았어요. 몇 평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례 A)

환경이 반지하에다가... 비가 제일 많이 왔을 때, 그때 반지하에 물이 엄청 차서, 흠 퍼나를 정도로 물이 많이 왔다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이제 곰팡이도 바닥에도... 곰팡이 자국 다 있고 벽지까지 다 올라올 정도라서 어, 저 제 남동생이 이제 아토피가 있고 친 오빠가 천식이 있어요. 저만 그 셋 중에 그나마 이제 건강한데, 저는 비염이(생기고)... 형제들이랑 같이 살던 그 반지하였고 반지하에서 사는데 이제 아이를 거기서 이제 산후조리까지 이제 해서 보니까 50일까지 산후조리를 쪽 해서 보니까 애가 뒤집어서 기어다닐 즈음에는 어디든 만지고 어디든 손이 닿을 텐데, 특히 우리는 일어서 있으니까 그나마 바닥을 안 만져도 애들은 주 생활이 바닥일 텐데, 그냥 ‘아~, 이사를 가야겠구나.’ 를 딱 거기서 생각을 했죠. (사례 B)

지금 임신하고 나서 집을 두 번을 옮겼는데, 처음엔 용답동 저기 원룸에서 살다가, 거기서 살다가 이제 애 키우면서 너무 좁아 가지고 급하게 투룸 있는 데를 갔는데 너무 낡아 가지고 다시, 낡은 데서 살다가 거기 보증 대주신 사장님이 “집을 나가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옮긴 거였거든요, 급하게. (사례 D)

저희가 원룸이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가 방 안에 창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엌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만 창문이 딱 있고 화장실에 창문 하나 진짜 작게 있고 그게 다였어서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막 그렇고 그래서 습해서 곰팡이 피고 막 이런저런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집에서. 그냥 저희 둘이 살기도 힘든데 아기까지 살면 이게 어떻게 될까 무서운 거예요. (사례 J, 여)

이런 상황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거나 위협을 초래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되는 요인이었다.

3) 자녀 친부와 동거 시작(변동적4)

예기치 않은 임신과 준비되지 않은 출산을 하면서 청소년부모들, 특히 청소년미혼모는 자녀 친부와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 때로는 집에서 나와 생활하면서 자녀 친부와 동거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혼모의 경우, 친부와 동거하는 것이 초기에는 안정감에 대한 희망이 되면서도 그것이 오래 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고등학교 다니다가, 18살 때 임신한 거, 19살에 애기 낳았으니까. 고등학교는 이미 자퇴한

후였어요. 그때는 (아기)아빠랑 같이 살았어요. (사례 A)

아, 원래는 딱 임신하고 낳고 나서 2달 정도는 계속 같이 있다가, 낳고 나서, 개가 군대가 있었거든요. (사례 E)

그리고 친부와 동거 과정에서 청소년부부로 가정을 이루려는 마음이 생기는 사례도 있었다.

애(남편)랑 연락이 한 번 끊겼다가. 다시 이제 연락하게 돼서. 그때부터 사실 이제 놀다가... 이렇게 슬슬. 새벽에 많이 놀다가 좀 약간 마음이 맞아서. 먼저 살다가... 혼인신고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아이와 부부) 가족 관계는 다 같이 올라가 있어요. (사례 I, 여)

동거를 시작하면서 같이 양육해 보려고 하는 것 자체는 나름 긍정적이었지만, 부부로서 또는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2.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청소년부모는 주거지원 이전 맺고 있는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원가족과 소원한 관계(전형적6)에 있거나 자녀 친부와 이별(전형적5)을 하였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모의 지지(변동적3)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임신과 양육에 대한 부정적 반응(변동적4), 가족 간 자녀 양육관 갈등(변동적1), 이웃과 소통 단절(변동적1)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1) 원가족과 소원한 관계(전형적 6)

청소년부모들은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대체로 어린 시절부터 원만치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 전형적이었고, 미혼모의 경우에는 자녀 친부와 이별한 경우도 전형적이었다. 사례 B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본 경험이 스스로 자녀 출산을 결정하였음에도 자녀 친부와 결혼을 생각하지는 않은 이유가 되었다.

(임신했을 때) 결혼을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서, 임신했으니까 해라. 저희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셨어요. 저희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도 4, 5학년 때도 엄청 이제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부터도 제가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는데, 대신 ‘결혼

생각은 없어도 애기는 한 네다섯은 낳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살다 보면은 마음 맞고 이제 그냥 그 생활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같이 지내는 것도 좋겠다.’ 라는 동거의 의식도 있기도 했고, 그런데 결혼은 너무 싫은 거예요. (사례 B)

아무래도 솔직히 나이가 어리니까, 왜 집에 있으면 부모님하고 부딪힐 일도 많고…. 그리고 막, 제가 또 밤늦게까지 노는 걸 좋아했어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서 자꾸 싸우니까, 제가 그게 싫어서 나왔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음…, 집에 사정이 있어서 교도소를 가서 가지고 몇 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머니가 또…, 우울증이 심하셔서 자꾸 저보고, 이제 아버지까지 그렇게 되시니까 더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꾸 욕을 하고 자꾸 소리치셔서. (사례 F)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부모님이랑 처음엔 연락을 좀 끊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연락을 하게 돼서. 그리고 나서는 그때는 제가 좀, 좀 많이 배가 좀 불러왔을 때 제가 얘기를 했던 거라서. (사례 H)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청소년부모들의 전형적 경험으로는 부모 외에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가깝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임신 사실을 안 경우에도 가족에게 뒤늦게 알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엄마만 계시고, 언니는 이미 결혼을 했고요. 왕래가 언니랑 그렇게 잦은 편이 아니라서. 엄마와 좀 그러지(가깝지) 않았고, 친정집에서 지내다가 아이를 갖게 됐고 그다음에 친정집에서 출산을 했어요. 엄마는 지금 임대아파트 신청해서 당첨돼 가지고 들어가서 살고 계시고요. 저는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사례 C)

2) 자녀 친부와 이별(전형적5)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자녀의 친부들은 대체로 당황해하고, 헤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전형적이었다. 총 6개 사례가 진술하였는데, 헤어지는 원인으로는 임신 이후 자녀 친부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청소년부모들, 특히 청소년미혼모의 경우에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었다.

원래는 아빠 성이었는데 제가 이혼하고 나서 성본 변경 신청해서, 제 성으로 바꿨어요. 애기가 아빠 성을 따라야 한다고 해서. 혼인신고하고 거의 3개월도 안 돼서 이혼했어요. (사례 A)

지금 나이로는 24살인데 제가 빠른 연생이라 만 나이로 22살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에 바로 임신했었어요. 임신했을 때 초반에만 연락하고 지내다가 그다음에는 연락 안 하고 지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연락이 다시 와 가지고 그냥 애들만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면접교섭만. (사례 C)

지금은 (자녀 친부와) 아예 연락 안 하고 그때 잠시 살았다가 이제 더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아예 끝났어요. 근데 막 이렇게 완전히 눌러 사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애 아 빠 집, 바로 여기, 그 전 집에 살 때 바로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왔다가, 조금 왔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은... 차단해 났어요. (사례 D)

이제 아마 성인될 때쯤에 이제, 고맘때쯤에 만나서 이제..., 스물한 살, 뭐 요런 때를 같이 보내다가, 이제... 예예.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리고 그때 마침 임신하고 겹쳐 가지고, 예. 둘이 그냥 안, 그냥 제가 혼자 키우겠다고 하고 이제. (사례 F)

여기에는 자녀의 양육은 고스란히 여성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이후 거주지 마련의 어려움 등 경제적 빈곤과 어려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순환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

3)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모의 지지(변동적3)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변동적으로, 지지의 경험도 있지만 동시에 거부 의 경험도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부모의 지지를 경험하는 것은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임신한 거 알자마자 바로 부모님한테 바로 말씀을 드렸어 가지고, 어른들은 ‘네가 선택 하는 거다’ 이런 느낌? 아, 그래서 그냥 출산해서 애를 키우고 일하는 거는 네 선택 문제라고. (사례 E)

이제 와서 좋게 생각하면 그냥 저희 엄마는 항상 그래요. “좋게 생각하면 그냥 개는 그게 무서워서 그냥 지(자녀 친부) 길 선택을 한 거고, 너는 너무 당당하고 아주 똑똑하니까 잘 선택한 거고.” (사례B)

또한 그렇게 출산을 지지해 준 가족은 지금도 어린 나이에 출산을 선택하고 양육

을 하는 청소년부모를 지지해 주고 있었다. 어떤 경우든 지지해 주고 믿어주는 가족은 사회적 지지 체계 중 가장 중요하고 든든한 사회적 관계가 되고 있었다.

4)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반응(변동적3)

가족의 지지와 반대로, 청소년부모 중 일부는 가족과 이외의 사회구성원으로부터 ‘거부’ 라는 부정적 반응을 경험하기도 했다. 자녀 친부의 부모와 임신을 진단한 산부인과 의사 그리고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기관에서도 낙태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쪽(친부 쪽)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이제 애기를 지우라고 했는데, 그 안(교정시설)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나와서 이제 같이 키우기로 했어요. (사례 A)

그때 남자친구 생활비 안 주고 군대를 갔고, 그쪽 집에서 원래 처음부터 싫어했었어 가지고, 저랑 애기를. 그냥 그런 반응이었어요. 애기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그거 뭐지? ‘너에 대한 도움은 안 준다’ 이런 느낌? (사례 E)

주변에서 막, 애기 막 지워야 된다. 이렇게 막 지우라고 많이 듣기도 들었는데 그런 기관에서까지 저한테... 그냥 좀 어이가 없었죠. 병원에서는 그래도 심지어 산부인과에서는 애기를 지우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사례 I, 여)

이는 청소년부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가족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관련 기관에서조차도 만연함을 보여준다.

5) 가족 간 자녀 양육관 갈등(변동적1)

청소년부모 중에는 자신이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부모로서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모와 양육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스스로 부모가 된 후로 원가족과 같이 지내는 것은 한편으로는 불편한 것이어서 오히려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어머니랑) 잘 맞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육아관이 좀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거기다가 쌍둥

이인데다가 좀 힘들기도 하고, 애들 때문에 엄마랑 부딪히는 게 너무 싫어 가지고 독립하게 됐고, 그리고 좀 내 가정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하게 되고 나서 제가 딱 가장이 됐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끼고 그런 느낌. (사례 C)

6) 이웃과 소통 단절(변동적1)

교정시설에서 임신기를 보내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의 사례도 있었다. 사례 A는 이 때문에 가족 및 또래 친구들과 왕래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지내고 있었다. 이렇게 사회생활의 기초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이웃과 소통이 단절되어 살아가는 데서 오는 답답함 역시 청소년부모가 변동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다른 기관이나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같이 애기 키우는 친구도 없었어요. 너무, 답답하죠. 친구를 만나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왕래하는 사람도 없고. 연락하는 친구는 있어도 만나는 친구는 없었어요. 문화센터 이런 것도 아니고 다니시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사례 A)

3. 정서적 상태

청소년부모들은 주거지원 이전부터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지만(변동적4), 양육 우울증을 느끼기도 하였다(변동적2). 출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자녀 친부의 태도에 엄마인 내가 더 노력하자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1) 양육 책임감 느낌(변동적4)

청소년부모 중에는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었음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이들이 있었다. 자녀 친부와의 관계가 끊어져도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양육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책임감은 생계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대한 의지를 북돋는 것이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남자에게 뭐 바랄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거 3, 4배로 더 벌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왜냐면 내가 못할 것도 없는데, 애기도 이렇게 키우는데 돈이라

고 못 별겠어? 이래 가지고 아, 그냥 개랑 관계는 끊고 싶은데 뭐 ‘천륜이다. 피다. 핏줄이다.’ 이래 가지고 아빠와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애기가 이제 좀 4, 5살이 돼서 말이 좀 통할 때 “엄마, 아빠는 우리 집엔 왜 아빠가 없어?” 라고 말할 때쯤에는 이제 애기를 해주려고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나는 너를 선택했으며, 그는 이제 그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 너는 아빠가 없는 게 아니라 같이 살지 않을 뿐이지 아빠는 있어.” 라고 말을 해줄 거거든요. (사례 B)

또한 청소년부부의 경우, 어린 나이에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꾸린 뒤에는 책임감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성이 불안의 심리가 강했던 것에 반해, 남성의 경우에는 자녀 외에도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져서 이것이 출산과 양육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태아를) 지우자고 했어요. 왜냐면 그때 상황이 제가 지울 수, 지우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게. 애(남편)는 돈을 안 벌고 있었고 저 혼자 돈을 벌고 있었어요, 임신했어도. 제가 28주까지 일을 했거든요, 일을? 근데 애는 돈을 안 벌고 저만 돈을 버니까 약간..., 그 책임감이 좀 컸다, 커야 되나? 그러니까, 애기를 낳아서도 내가 애랑 애기를 다, 둘 다 책임져야 하니까, 책임져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랑. (사례 I, 여)

그게(불안감) 너무 커 가지고. 지우자 했고, 애(아내)는 내가 책임지겠다, 낳자. 해서 그냥... 웬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애 말을 믿은 거 같아요, 그냥. 그냥 믿고. 낳기로 결심하고. (사례 I, 남)

저는 어렸을 때 솔직히 가족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거든요. 막내인데 아빠는 도박을 하였고, 어머니는 진짜 새벽이랑 저녁 상관없이 진짜 일해서 맨날 새벽에도 몇 시부터 5시에 일 가고, 그래서 진짜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래서 약간 결핍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 옆에 많이 있을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괜히 나처럼 크면 애가 상처 많이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된다고 그래서 많이 부탁한 게 많아요. (사례 J, 남)

2) 양육 우울증 느낌(변동적2)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부모 중에는 또래보다 이른 시기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가족이 없는 것, 자녀 양육에 대한 막막함 등으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기도 했다.

많기는 한데 아무래도 지금 친구들은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어리잖아요. 저랑 같은 고민

을 공감해 줄 수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이 말을 할 수도 없고, 가족들한테는 더 무리가 있으니깐 더 말도 못하고 평소에는 그냥 혼자 삭이는 편이에요. 말할 사람이 없고. 사실 육아하고 이걸 혼자 하고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지금 사실 병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2년 동안 산후우울증부터 쪽 이렇게 천천히. 약을 먹고 있는데 얼마 전에 좀 이렇게 증세가 갑자기 심각해져 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우울증이랑 있다고 이것저것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약 먹으면서 치료받고 있어요. 애 낳고 산후우울증 있어서 그냥 그게 쪽 온 것 같아요. (사례 C)

그냥 뭐 밤에 혼자 술도 많이 먹고 이랬었어요, 혼자서. 뭐 좀 혼자서 애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힘드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사례 G)

4. 학업 및 경제적 상황

청소년부모는 주거지원 이전 학업과 경제적 상황 측면에서, 주거비 마련의 어려움(전형적6), 생계비 해결의 어려움(전형적5), 단기 계약직 생활(변동적4)을 경험하였다. 또한 학업을 중단하고(변동적4), 학업을 지속하게 되는(변동적2) 과정을 겪고 있었다.

1) 주거비 마련의 어려움(전형적6)

청소년부모 대부분은 주거지원 이전에 주거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거비로는 크게 보증금과 월세가 필요한데, 주로 배달 종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에 많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직장 사장님이나 친구에게 빚을 져 생활하기도 했으며, 주거비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정함은 주소지 불명이나 잦은 이사 등으로 인한 불안을 강화하고 있었다.

월세가 30만 원인데, 월세는 그때 남자친구였던 애가 이제 일해서 배달해 가지고 (임대인에게) 계속 드렸었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라도 해서. (사례 A)

그때 애 아빠 일하던 데 사장님이 빌려주셔서 가지고, 500만 원을 빌려주셔서 가지고 거기서 살았고..., 원래 1,000만 원 뭐 어찌고저찌고 해 가지고 깎아 가지고 500만 원에 하여튼 뭐 이렇게 애 아빠가 다 부담했었거든요, 그때는 일을 아예 못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애 아빠가 중간에 집을 나갔었어요.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애 때문에 잠깐 왔다가 이렇게 다시 가고, 하여튼 이런 일이 되게 반복됐었는데, “이제 아기가 좀 기어 다니면 이

제 여기는 너무 좁을 것 같다. 짐도 이렇게 늘어지고.” 막 그래 가지고 계속 제가 “방 얻어 달라” 막 이렇게 계속 했었어요. 사장님이 이제 애 아빠랑, 사장님이랑 애 아빠랑 일을 관두고 나니까 이제 보증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사례 D)

원룸에서 좀 계속 자주 월세가 밀리니까. 방을 빼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빼게 되면 제 주소지는 붕 떠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붕 떠버리면 얘기하고 살 때 이제 지원을 못 받고, 도움을 못 받는 그게 되게 컸었어요. (사례 E)

원룸에 살 때는 보증금 100, 100만 원에 월, 월 30만 원 나갔거든요. 원룸이었는데, 그 정도 내는데. 그거... 그 돈도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 집도 30만 원이었는데. 10, 15만 원, 15만 원(나눠 냈어요). (사례 F)

또한, 주거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직장이 없고 일정 소득이 없는 어린 나이라는 점은 제1금융권의 대출을 어렵게 하여 제3, 4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했는데, 이것은 청소년부모에게 주거비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빚을 계속 만드는 일이기도 했다.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수입이 없어서) 대출을 받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파산신청 했을 때 있던 게 거의 19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제 거의가 3금융 아니면 4금융(에서 대출을 했어요). 나이도 어려서 안 되고 그때 뭐 직장이나 카드도 없어서, 그런 데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례 A)

2) 생계비 해결의 어려움(전형적5)

주거비 마련의 어려움과 함께 생계비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전형적인 범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청소년부모 중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월세와 생활비 때문에) 3개월도 안돼 가지고 일했던 것 같아요. 다 알아봐서 이제 병원 비라든지, 뭐 그런 거하고 수급자가 되면은. 뭐 수급자가 출산을 하면 뭐 돈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받고, 그리고 뭐, 그..., 여기 대구에,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도 이제 찾아 가지고, 예. 사, 상, 그거 어떤지, 이제 오셔서 상담하고, 이제 지원받아 가지고. 그거 추, 출산하고 이제 산후도우미. 쓸 수 있도록 또 도와주셨거든요. (사례 F)

맨 처음 저희가 애기 좋은 걸 먹여야 되고 더 먹여야 되는데 저희가 뭐 아직 어리고 관리를 그뻐 잘 못하니까 그게 막 그 전 그냥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어느 때는 막 집에 막 물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친구들한테 연락 다 해서 물 계속 사 오고 그래도 애가 먹고 싶다는 거 최대한 사 주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거의 다 주셨어요, 음식 같은 거. 임신에 좋다는 것들 구해서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애 먹고 싶다고 하면 같이 시장 가서 같이 막 애한테 서프라이즈 뭐 선물도 해주시고 막 그랬었어요. (사례 J, 남)

이제 양육비 관련해서 요구를 한 번, 전화를 했더니 “이제 니가 알아서 하겠다며.” 이러면서 끊어가지고 그냥 ‘아, 이 새끼는 진짜 답에 답도 없다.’ 싶어서, … 근데 이제 요즘 제 주변에서 저보다도 좀 아이를 많이 키우신 미혼모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께서는 이제 양육비는 너 때문이 아니라, 애 때문에 받아야 하는 거라고. (사례 B)

3) 단기 계약직 생활(변동적4)

주거비와 생계비 마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들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청소년부모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직업에 관하여 많은 제한을 경험했는데, 이들이 주로 종사할 수 있었던 일의 종류로는 아르바이트와 단기 계약직의 형태가 많았다. 특히, 청소년미혼모의 경우는 거의 출산 직전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아이를, 아이가 생긴 걸 알자마자 남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놈은 글러먹었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그때부터 알바를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알바를 해서. 임신 중에 알바를 했죠. 왜냐하면 임신 중에 막 아무것도 안 움직이면은 오히려 몸이 루즈해 지고 애기 낳을 때도 힘들다 이래 가지고 운동 삼아서도 한 게 있었고 집 근처가 워낙 교통 중심지이다 보니까 알바할 데도 많아요. 그래서 알바도 했고 막달까지 했던 것 같아요. 막달까지 하다가 거의 이제 막달 될쯤 배가 불러왔을 때쯤에는 이제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보험설계사로 근무를 하고 있죠. (사례 B)

임신, 그러니까 배 나오기 전엔, 임신 6개월 초까지는 새벽에 서빙 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80, 190(만 원) 받았어서 그걸로 됐는데, 그거 그만두고 나서부터 막 힘들었죠. (사례 E)

임신했을 때, 쌀국수집에서 서빙하고. 18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조금씩 야금야금 쓰고 있긴 해요. (사례 G)

4) 학업의 중단(변동적4)

청소년부모 중에는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기 전에 다양한 이유로 이미 학업을 중단한 경우들이 있었다. 학업에 대한 흥미가 없거나(사례 I, 여), 자신의 꿈이 좌절되거나(사례 I, 남) 또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학업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사례 H). 즉, 학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임신을 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학업 중단의 계기가 되는 사례도 있었다(사례 C).

고등학교 1학년 다니고 제가 학교를 안 나왔거든요. 저랑 너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안 다니다가 제가 자퇴를 하려고 연락을 해서 갔는데 거기서 제적 처리가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중략) 고등학교 때부터 장학금 받고. 예. 고등학교 때도 장학금 받고 그랬죠. (사례 I, 여)

저는 솔직히 꿈이라는 게 어렸을 때 딱 한번 꿰봤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 꿈을 하기 위해 제가 한 10년을 좀 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너무 허무하게 그 꿈을 포기하게 돼서, 그때 이후로 꿈에 대해선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좀 있어서 아직까지도 내가 정말 뭘 하면 좋을 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원래 제가 축구 선수를 하려고. 거의 축구 유망주였거든요.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계속 축구를 했어요, 클럽도 다니면서.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막 그때부터 체력도 많이 안 좋아지고 사고 난 이후에, 그래서 경기하다 도중에 탈진도 막 많이 오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게 막 오래 뛰면 후유증 같은 게 남아서 다리가 갑자기 딱 멈춰요. 한쪽 다리가 안 움직여요. 그 후 유증 때문에 어디가 안 좋은 건지 제가 신경 쪽에 약간 좀 그 트라우마가 남은 건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거기 병원에서 아,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때 포기하고. (사례 I, 남)

그러니까 동생은 또 혼자 거기(해외)에 있고 고모, 친척들이 거기 계셔서 혼자 거기 있고 또 저랑 부모님이랑만 이렇게 들어왔다가 저는 졸업, 그 뭐냐,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그 초반에, 초반에 그때 부모님이 “다시 외국에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난 안 간다.” (사례 H)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래는 취업을 하려고 했었다가 대학교로 진로를 변경을 했었거든요, 일자리를 그만두고. 그런데 대학교 다니면서 임신을 하게 된 거라서, 대학교도 자퇴를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애 낳고, 1년 동안 애 보다가 아기 돌 되자마자 어린 이집 보내고 지금은 다른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사례 C)

5) 학업의 지속(변동적2)

학업을 중단했던 경우와 다르게 또 다른 사례에서는 주거지원 이전부터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경우도 있었다(사례 C, F). 하지만 학업을 지속하려는 이유와 목표가 자신의 꿈 성취보다는 졸업 자체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취업을 통한 사회생활의 기반을 다지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학 전공은)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고등학교 때 했었던 거, 잘했던 거 생각해서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그냥 무조건 학교를 졸업해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던 게 어린 나이에 가져서 혹시라도 나중에 나쁜 말 들을까 봐 그냥 무조건 대학교만 졸업은 해야겠다, 이런 마음. 최대한 빨리 졸업하고 저는 이제 취업이 목표라서(2년제를 선택했어요). (사례 C)

어, 네. 알바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집에, 이제 제가 혼자 돈을 벌어야 하니까. 네, 계속 일하면서 공부해서 하고 그랬어요. (사례 F)

5. 주거 탐색 과정

앞서 살펴본 이유들로 인해 청소년부모들은 주거지원 이전에도 스스로 주거를 탐색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은 주로 주거 가치 확립(일반적10), 인터넷 검색(일반적10), 기관 문의(일반적10), 지인 활용(변동적3)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1) 주거 가치 확립(일반적10)

청소년부모들은 불안정한 주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름대로 바라는 주거 환경을 구상하고 그에 맞는 주거를 탐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역시 선호하는 주거 가치를 확립하게 되는데, 우선되는 기준은 ‘어린 자녀가 거주하기에 적합한가’ 하는 것이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통이 편했으면 좋겠다거나(사례 B, D), 자신의 자

너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음 공간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사례 A, E).

거기서(공인중개소에서) 알아봐 주신다고 할 때, 일단 거리, 위치만. 이제 제가 보험설계사로 일 하는데 그쪽 위치나 아니면 제 현재 집보다 조금 가까운 거리, 교통이 편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때 차도 없었고 애기랑 같이 사니까. 그래서 그쪽 위주로 찾다가 지금의 집을 찾은 거죠. (사례 B)

근데 또 애 맡길 때도 되게 맨날 뭐였지? 택시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 비용, 작은 어머니네 자주 갔었는데 그 비용이 또 그때 당시에는 적지만은 않았거든요, 10 얼마씩 드는 게. 그렇다고 걸어가려고 하니까 제가 허리도 안 좋고 그런데 유모차는 또 그때 당시에 없었고 너무 일인 거예요. 솔직히 걸어가려면 30분 걸려야 되는데 애 안고 걸기도 힘들고. 너무 가까워서 좋아요. 작은 어머니랑 일단 집이 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사례 D)

(기존에 살던) 오피스텔은 방음은 잘되는 편이었고, 풀옵션으로 다(있었어요). 생각보다 애기 짐이 많아서(투룸에 있었어요). 애기 이제 낡아 되는 것도 많고 이제 좁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계속 투룸 찾았던 것 같아요. 집을 볼 때, 크기를(우선순위로 뒀어요). 크기랑 깨끗함. 깨끗하다는 거는 별레 없고 곰팡이 없고 이런 거 위주로 봤었어요. 일단 짐이 많으니까 노화되고 이제 애기 이제 자고 뛰어놀 수 있어야 돼서. (사례 A)

일단 저는 살던 데가 오피스텔이어서 애기가 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햇볕 잘 들고 이랬던, 그 기관(미혼모시설) 갔다 와서 이제 저랑 엄마랑 동생이랑 살았는데, 제가 이제 가니까 엄마가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셨어요, 다시. 그래서 거기,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두 달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사례 E)

2) 인터넷 검색(일반적10)

하지만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를 찾기 위하여 청소년부모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이었다. 이는 모든 사례에서 공통되게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알게 되거나 관련 기관의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는 주거지원에 대한 소개를 받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주택 물색은) 그냥 인터넷 문의만 했어요. 그냥 다 이제 SNS나 아니면 그냥 미혼모지원 네트워크 주변에서 알려준 거로 바로. (사례 H)

임대주택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 몰랐어요, 처음엔. 처음엔 모르고. 임대, 임대주택은 몰랐고 임대아파트는 알고 있었는데. 임대주택은 그 후에 계속 집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사례 E)

전 계속 찾아보는 거 좋아해 가지고 (인터넷을) 계속 찾아봤어요. 네이버에서 많이 검색했어요. (사례 D)

특히,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를 알게 되는 것도 인터넷 검색을 통한 경우가 많았는데, 인터넷 검색 이후 결국 기관과 연계가 되는 것은 주거지원을 받거나 이에 대한 진행이 좀 더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었다.

제가 어떻게 연락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계속 검색을 하다가, (미혼모지원네트워크를) 인터넷에서 찾았던 거 같아요. 기억이 썩, 제가 요즘에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찾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저렇게 상담신청을 했었나?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셔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해달라 해 가지고, 제가 임신, 아 그때 6개월인가? 5개월이었었는데, 7개월부터 된다 하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아, 막 전화로 어떡하지? 그러고, 막 그러다가 이제..., 팀장님께서 결국에는 회의 해, 거쳐 가지고 이분 좀 해, 일찍 해주자 그래서, 어 다행히도 지원받아서, 예예. 그렇게 됐어요. (사례 F)

네이버 이런 데다 많이 올렸었는데, 다 이상한 분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답변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좀 이상하겠다 해 가지고, 보통 네이버 지식인에 많이 물어봤고. 처음에는 임신했을 때는, 혼자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 데도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저랑 같은 이런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정말 그때는 그냥 혼자서 생각만 했어요. 아무래도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어서, 그때 미혼모지원네트워크 알기 전에는 다른 기관에, (한번도 알아본 적)없었어요. 하는 방법도 몰랐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례 G)

미혼모지원네트워크 알기 전에, 건강지원센터도 제가 다 인터넷으로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데도 보건소 이런 쪽으로만. 근데 되게 블로그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이런 데, 이런 데가 있구나.’ 하고 미혼모지원네트워크를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게 된 거죠. (사례 B)

3) 지인 활용(변동적3)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그 밖의 주거지원사업에 대해서 직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는 것 외에 먼저 이를 알고 있던 지인이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기관을 소개해 줌으로써 알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지인은 대부분 시설에서 만난 사람이거나 가족들로, 가족 외에는 시설에서 만난 사람들이 유일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기관)연계는 시설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저희들끼리 알아보고 먼저 퇴소한 언니들이 자주 놀러 오서 가지고 그 언니들한테 도움 받고 그랬어요. 많이 알려주시고, 그게(퇴소자가 정보를 공유하는 게) 대대로 내려오나 봐요. (사례 D)

전 저희 아빠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뭐 SNS 이런 데서도 봤고 해서, ‘나도 지원할 수 있나?’ 해서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LH에서 이런 주거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애초에 처음부터 몰랐죠. 처음에는 몰랐고…. 구리로 이사 가고 한 3달, 4달 전부터는 알아 가지고 그때 신청을 했었거든요. (사례 H)

LH 정보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저는 거기 (미혼모)시설 쌤들이 다 알려주셔서 (사례 J, 여)

4) 기관 문의(일반적10)

청소년부모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보면서 직접 지역의 행정기관과 민간기관, 부동산에 문의를 하기도 했다. 글을 올려보거나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이다. 기관에 직접 문의하고 찾아가는 것은 갈 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주거지원이 있었는데. 네. 근데 날짜가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한번 연락해 봤죠, 진짜. 왜냐면…. 애랑 안 헤어지려면 나가야 되니까. 진짜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에) 연락을 했더니, 상담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사례 I, 여)

막 임신 초기 증상, 막 이런 거 막 입덧이면 입덧이라 치고 막 혹시 막 이런 상황 있으면 지식인 같은데 물어봐서 글 올리고 막 그런 것도 애가 하고, 같이, 글도 올려 봤어요. (사례 J, 남)

청소년부모들이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그전

에 스스로 주거 탐색을 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스스로 탐색해 보려고 해도 주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의 불친절(변동적3), 임대주택의 정보 부족(변동적2)이 있었다.

5) 행정기관의 역량부족(변동적3)

주거 정보를 탐색하고 새로운 집을 찾으면서 청소년부모들은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는데, 실제 사회복지담당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또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알려주고 싶어도, 업무 보직의 순환 등으로 인한 임대주택 정보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게 약간 뭐 어떤 통합적으로 정리된 게 있어 가지고 이제 딱 주면 좋겠다, 그런. (공무원은) 계속 여기가 빠지면 들어오고 빠지면 들어오고 하니까, 본인들도 일을 몰라요 “아, 잠시만요.” 이려고 그 책자 보고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거 읽고 또 오세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면 또 몰라서 읽고. 계속 시간 딜레이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맞아요?” 하면 “아, 그런 게 있나?” 하면서 자기가 찾아보다가 “찾아, 아, 있네요.” 그러면 “아, 저런 거, 저런 거는 있는데 이런 것도 있냐.” 하고 또 물으면 “아,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사례 B)

절차에 있어서요? 절차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잘 찾아봐야죠. 그게 진짜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왜냐면 누가 다 밥을 떠 먹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본인들이 찾아봐야 되고, 혹시나 안 되는 것에 있어서는 옆에서라든지 누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가 이제 지원네트워크 같은 단체라든지 단체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거기서도 이제 커리큘럼이 짝짝 짝 짜여있어서 “아,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연락해 보세요.” 하고 이런 걸 준다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 직원들도 1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자기네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사례 B)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주거 정보와 관련된 공적 지원 절차 안내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또한 실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더욱이 소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 부담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막 만들지 말고 수요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공급을 하든지. 수요도 없는데 공급만 자꾸 이제 막 늘어나니까, 빈집 많고, 그럴 거면 그냥 아예 저소득층한테는 진짜 저렴하게 내놓든지, 돈이 진짜 많은 사람한테는 많이 받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 하시잖아요. 저희한테는 월 30도 많이 부담이다 이거죠. (사례 B)

6) 임대주택의 정보 부족(변동적2)

청소년부모들은 행정기관에서의 불친절과 함께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자체의 부족함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했다.

아빠한테 (임대주택 정보를)듣기도 들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아빠한테 이제 작은 일부를 듣고 “LH가 있다. 뭘 해준다. 행복주택이 있다.” 이걸 듣고 인터넷으로는 또 제가 따로 찾아본 거죠. 그래서 LH 직접 사이트 들어가서 본 결과로는 ‘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했는데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는 제가 생각을 못한 거죠, 신혼부부니까. (사례 B)

처음에 저는..., 애초에 원래 도움 받고 있었던 여기에다가 얘기를 했었어 가지고, 여기서 그냥 바로 바로, 이렇게 찾아주시고 연계해 주시고 그런 느낌이었어 가지고. 처음에 이제, 집 같은 거 여쭙봤을 때도. 그 뭐지? 아마 여기서(미혼모지원네트워크) 알려주셨을 거예요. 전세임대주택. 국장님이 그쪽을 많이 아시거든요. 전세임대주택이 아마 신청을 하면은 될 거라고. 그래 가지고 선생님이 알려 주셔 가지고 제가 바로 할 수 있게끔 된 거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지원 바로 해주시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데도 연결해 주시고 그렇게 됐으니까. 안 그랬으면, 몇 군데 막 알아보거나. (사례 E)

청소년부모 중 부부의 경우에는 ‘신혼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찾기가 더 어려웠다. 또한 저소득층은 이러한 정보를 더 알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진술한 사례도 있었다.

안 나오는 것도 확실히 많고. 대신 이제 내가 찾겠다 싶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으면 그 단어는 알잖아요. 그거를 입력하면 거기서 이제 몰타기로 ‘아~, 한부모가족, 뭐 신혼부부 임대주택이 또 따로 있구나.’ 를 알게 되는 부분 있는데 내가 처음부터 신혼부부 임대주택, 한부모 임대주택 이런 걸 찾을 수는 없죠. 모르니까. (사례 B)

그러니까 이게 전세임대주택 신청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무소

특자나 한부모, 그런 차상위계층은 즉시 신청 그런 게 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은 시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뭔가 두 가지가 나뉘는지는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랐거든요. 내가 집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 혼자만 머릴 싸매고 있고 이 사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미혼모지원네트워크처럼 그걸 알고 있으신 분을 또 만나지 않았으면은 또 힘들었을 거. (사례 E)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청소년부모들에게 제공한 주거 정보는 기존에 문의를 했던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지원이 부족하였는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미혼모지원네트워크 담당자 선생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저보다 더 저한테 다 해주시려고 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몰랐던 거는 LH에서 저는 행복주택만 알았다면 이 분은 이제 신혼부부인데도 이제, 한부모도 갈 수 있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이런 서류가 필요할 것이니까 이걸 미리 떼와라.” 라든지. 만약에 신청을 했으면 “어느 정도가 또 이제 그 보증금에 있어서는 이만큼은 또 어디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것도 다 알려주시고. (사례 B)

제2절 주거지원 이후

청소년부모들은 주거지원 이후 ① 주거 환경의 변화, ② 정서적 상태와 주변 관계의 변화, ③ 경제적 상황의 변화, ④ 새로운 장래 계획, ⑤ 자녀 돌봄의 문제 지속, ⑥ 사회적 무시로 인한 아쉬움을 경험하고 있는 등 총 6개 범주의 21개 하위 영역이 도출되었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IV-3>과 같다.

<표 IV-3> 주거지원 이후 교차분석 결과

하위영역	범주	빈도	유형
1. 주거 환경의 변화	넓고 깨끗한 거주 공간	9	일반적
	안정된 거주 기간	5	전형적
	친아동적 양육 환경	3	변동적
	반려동물과 거주	3	변동적
	일과 양육의 병행	3	변동적
	안전한 양육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임대주택	8	전형적
2. 정서적 상태와 주변 관계의 변화	심리적 안정감	9	일반적
	사회적 관계의 회복	8	전형적

	양육 책임감 강화	5	전형적
	애정적 양육 태도로의 전환	3	변동적
	청결한 환경 유지 욕구	1	변동적
3. 경제적 상황의 변화	생활비 지출의 증가	10	일반적
	주거비 지출의 안정	7	전형적
4. 장래 계획의 변화	직업 및 취업에 대한 희망	7	전형적
	주거 마련 의지	5	전형적
	학업 지속 의지	4	변동적
5. 자녀 돌봄의 문제 지속	경제적 어려움의 지속	6	전형적
	취업의 제약	5	전형적
	부모 역할 지원 부재	4	변동적
6. 사회적 불안	불편한 사회적 시선	4	변동적
	원가족과 관계 회복의 제약	2	변동적

1. 주거 환경의 변화

먼저 주거지원 이후 청소년부모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첫 번째 변화는 주거 환경의 변화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주로는 넓고 깨끗한 거주 공간(일반적9), 안정된 거주 기간(전형적5), 친아동적 양육 환경(변동적3), 반려동물과 거주(변동적3), 일과 양육의 병행(변동적3)이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지원 이후 주거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한계로서 안전한 양육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임대주택(전형적8)이 있었다.

1) 넓고 깨끗한 거주 공간(일반적9)

청소년부모 대부분은 주거지원을 받아 이사한 이후 현재 거주지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특히, 이전의 좁고 비위생적이었던 원룸에 비하면 투룸 이상의 새로운 거주지는 넓고 깨끗한 거주 공간이라는 점에서 아이도 자유롭게 놀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러운 변화였다.

원룸에서 이렇게 투룸 오니까 나의 공간도 따로 생기고 애, 애 공간도 따로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저희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분리가 되니까 거실에 둘 물건은 거실애다가 두고 TV나 아니면은 뭐 서랍장 같은 거 그런 거 거기다 두고 주방에는 주방 물건만, 딱 두니까, 공간 분리가 좀 확실하고. 주방은 딱 주방대로 쓰고 거실은 거실대로 쓰고. 오히려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더 좋아졌죠, 저는. 어려운, 딱히 아예 어려움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은 더 좋아져서. (사례 H)

애기가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노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답답해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막 애가 또 시력이 생기면 막 어디 많이 보잖아요. 원룸엔 너무 밀폐된 공간에서만 보니까 그런데, 또 애가 방에만 있다가 거실 가면 엄청 좋아하고 또 다른 방 가면 엄청 좋아하고. (사례 J, 남)

2) 안정된 거주 기간(전형적5)

물리적 공간으로서 거주지가 넓어지고 청결해진 것도 만족스러운 변화이지만, 그 외에 안정된 거주 기간을 확보했다는 점이 또 다른 변화였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은 거주 기간이 최소 2년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웠다.

지금 이리로(새집) 온 지 5개월 정도 됐어요. 지금은 보증금이나 집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크게 신경 쓰시는 부분은 없어요. (사례 I, 여)

(2020년) 1월 말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 시점부터 아마 2년일 거예요. 월세는 아니고, 그 LH에 임대료를 따로 한 달에 16만1,500원씩 내고 있거든요. (사례 C)

여기는(전세임대) 2년을 거주할 수 있는데, 늘릴 수는 있는데 이제 집주인이랑 잘 상의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빌라인데 상관없는 것 같아요. (사례 D)

3) 친아동적 양육 환경(변동적3)

청소년부모들은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곳을 최우선 주거 가치로 꼽고 있었는데, 그에 비추어 주거지원 이후 거주하게 된 곳은 그 주변 환경이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 자녀 돌봄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의 접근성, 아동이 많은 동네 환경, 아동에 대해 친화적인 이웃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어린이집이, 바로 앞이었어요. (중략) 음... 아, 뭐, 아니, 어떤 데는 애기, 애기 있으면 막 시끄러우니까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사람 있잖아. 여기가 애기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사례,A)

근처 어린이집이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셔서가지고. 그래서 48개월까지만 애기 어린이집 그, 주 양육을 해주시는 분들은 바꾸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린이, 그, 그 뭐야 뭘 읽 어봤는데 그냥.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애기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는.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게 그냥 거의 집이에요. 가족이에요. (사례 B)

다세대주택인데, 아이들을 키우기에 아이들도 근처에 많고 (좋아요). (사례 H)

4) 반려동물과 거주(변동적3)

청소년부모들 중에는 애완동물을 같이 키우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대개 자녀를 양육하기 전부터 함께 살고 있었다. 청소년부모에게 애완동물이 또 다른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 큰 거 텔꼬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계속 키운다고, 벌써 같이 산 지 3년 됐네요. 아이보다 더 오래, 훨씬 더 오래됐네요. (사례 F)

20살 때부터 (강아지를) 키웠어요. 20살 초반부터 키웠어요. 아이 낳고 나서 직후부터 1년 정도 지나서 왔어요. (사례 H)

고양이도 두 마리 같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4인 가구입니다. 2인 2묘 가구입니다.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많아요. (사례 B)

4) 일과 양육의 병행(변동적3)

청소년부모들은 주거를 마련하고 난 이후, 자신의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 만족하기도 했다. 자녀 양육과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한부모로서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거주 환경은 매우 중요한 조건일 수밖에 없었는데,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서 주거지를 얻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다.

지금 일하는 데가 위치도 되게 가까워서 좋고, 가까워서 좋아요. (사례 D)

거의 한 6시간, 9시간은 거기, 8시간은 있으니깐 평균 8시간은 있으니깐 거기서(어린이집) 이제 밥, 저녁밥 먹고 잠만 자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놀고 주말에 이모들 만나고 이러니깐 그냥 애기가 오히려 어린이집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은 5개월 조금 넘어서부터 갔어요. (사례 B)

6) 안전한 양육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임대주택(전형적8)

주거지원을 받거나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본인들도 미처 모르고 선택하기도 했기에, 안전한 양육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전형적이었다. 다소 비위생적인 환경, 방음의 미흡, 방범의 불안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 깨끗한 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맨날 설거지할 때마다 저기 아래 나무인데... 저 밑에 부분이. 저기 사이에 바퀴벌레 죽은 게 딱 들어가 있는데 그때마다 설거지 이거 진짜, 제가 집중하다 보면 막 이렇게 발을 대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바퀴벌레 죽어 있는데 또 그렇다고 그걸 버리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애기는 계속 옆에서 설거지할 때마다 이리 오라고 저기 아래로 다리 잡고 끌어안고 있는데 애기 다리에 닿으면 또 너무 싫은 거예요. 하여튼 그랬어요. (사례 D)

밖에서 들어오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바퀴벌레도 나올 때도 있고 또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방범창이랑 또 창문 안전 고리?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은 창문을 조금 더 시원하게 열어놓고 싶다 해도 방충망이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깐, 부실하긴 해요. (사례 E)

좀 불안하고, 여기가, 아무래도 골목..., 저쪽 안쪽인데. 좀..., 좀 무섭기는 한데. 예, 그래도 막 그거, 막 다른 엄마, 뭐라 그래야 되지? 미혼모분들 보니까 대구에, 더 환경 안 좋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되게 만족해요. 여기가 완전 원룸촌이어서 가지고요. 근데 이제 아기를 키우면 막 아기 울음소리도 사실 나고... 이, 이렇잖아요. 옆집이 그, 원래 애기 엄마가 키우다가 이사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새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저씨가 들어오셨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데, 아직은 아무 말 없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례 F)

옆집 소리에 애기가 엄청 울거든요, 항상? 소리 들으면 울어요. 옆집 애 좀 3살, 4살인데. 울면요, 저희 아이도 깨가지고 울고. 윗집에서 쿵쾅거리 가지고, 아기가 놀라 가지고

계속 울고. (집이) 좀 오래 됐더라고요. (사례 I, 여)

그래서 이후에는 방문과 방법 등 양육에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주거 가치로 선호하며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다세대주택을 자녀와 함께 오르내릴 때 필요한 승강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이 같은 점을 중요시하고 있기도 하였다.

저는 일단은, (집을 구할 때) 우선순위요, 일단은, 어... 그거, 그거 중문이 있나 없나. 현관 들어올 때, 그래서 소음이 다 들려요. 밖에 있는 소음이 다 들려가지고 저희도 애기 키우니까 애기가 울 때마다 그 소음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저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문이 있으면 방음이 되니까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층간 소음 문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례 J, 여)

(빌라)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애기 데리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유모차도 뭐 이렇게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사례 J, 남)

2. 정서적 상태와 주변 관계의 변화

주거지원 이후 청소년부모들이 경험한 정서적 상태 및 주변 관계의 변화로는 심리적 안정감(일반적9), 사회적 관계의 회복(전형적8), 양육 책임감 강화(전형적5), 애정적 양육 태도로의 전환(변동적3), 청결한 환경 유지 욕구(변동적1)로 나타났다.

1) 심리적 안정감(일반적9)

청소년부모들은 거주지를 옮긴 후,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공간이 넓어지고 편안해졌다는 것이 주변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심리적 여유와 마음의 답답함 해소, 집에 있고 싶은 마음, 마음의 편안함을 갖게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엄청 편하게 잘해 주셔서, 막 그렇게. 시설이라고 하면 제 사생활에 엄청 터치할 것 같은데. 원래 막 대표님이라고 하는 뭐 회사랑은 약간 거의 다가 통보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막 대표님 저희에게 막 연락하셔서 “혹시 시간 안 될까?” 하고 먼저 여쭙봐 주시고. “안 되면 내가 다시 시간 조정해 주겠다.” 라고 힘들면 쉬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엄청 저희한테 많이 맞춰주세요. (사례 J, 남)

일단 좀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그래도 뭔가를 해 보고 싶어서, 화분을 키우고 있다가, 죽이긴 했거든요. 여기 옥상이 있어 가지고 살짝 텃밭 만들었는데, 죽이긴 했는데 그래도 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저 청계천이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옆에 따릉이 원래 있었거든요. 지금 없어지긴 했는데, 며칠 전까진 있어서, 또 저도 약간 좀 청계천을 좀 가면서 좀, 아, 뭐라 해야지? 사람이 약간 햇빛 이런 걸 받아야 이렇게 그런다 하잖아요. (사례 D)

네. 집에 와도 편하고 이러니까. 다시 재계약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딱 들어와서 설 수 있는, 편하게 설 수 있다? 그렇더라고요. 애기도 나름대로, 뭐 전에는 좁아서 애기가 뭘 못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 좀 넓어졌으니까 막 이것저것 할 수 있고. 애기 장난감을 뭐 어질러 놓든 뭘 하든 전엔 좁아서 답답했는데. (사례 E)

일단 애기랑 둘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 그게 전에는 ‘빨리 애기랑 생활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심적으로 되게 불안감도 엄청 크고, 기관에 있을 때도 ‘집 못 구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되게 불안감이 컸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지고, 안정적인 공간이 있다는 거. (중략) 일단 전에도 가정이 이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엄마도 이제, 저희 엄마도 이혼하셔서 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애기 봐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일하기 힘들고, 전에 살던 곳이 애기를 키우기에 딱히 적합했던 공간은 아니어서 ‘빨리 집을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사례 G)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제가 제 심적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거기서는 좀 힘들었어요,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근처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사례 H)

2) 사회적 관계의 회복(전형적8)

청소년부모들은 거주지를 옮긴 후 사회적 관계도 점차 회복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 공간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거나 때로는 아이의 어린이집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과 단절됐던 관계가 조금씩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교회 앞에 있는 거기나 주차장이나 뭐 이런 데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다가 갑자기 집이 저희를, 아무리 저희 명의를 아니고 저희 돈이 아니더라도 일단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집, 한 집에서. 이제 인테리어들도 뭐 이런 거 등등 뭐, 뭐 이제. 장도 보면서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한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별 할 다, 별

다른 말 없이 그냥 무조건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고. (사례 I, 여)

요즘도 귀찮아서 잘 안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나가자.” 하면 진짜 바로 앞이니까 나가기도 하고 애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친구들이랑 좀 놀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친구 만나서 놀고. (애기 엄마들이랑) 가끔 인사는, 아, 맞아요. 그때는 그리고 쪽팔려 가지고 집에 아무도 못 데리고 왔거든요. 작은아버지가 보고 저희 집 전쟁 났다 할 정도로. 그런데 좀 이렇게 누구 데려와도 이제 쪽팔리지는 않으니까 스스로이 조금은 이렇게, 그냥 집에 들렀다 가라고, 예전에는 더러우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맞아. 사람들 오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죠. 사실 오라고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죠. (사례 D)

전에는 조금 같이 사는데, 오피스텔이라고 하니까 말하기가 좀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 집 지금 있잖아.” 이려고 “놀러 와.” 이려고, 친구들도 자주 놀러 오고, 애기도 친구들 보니까 좋아하고. (사례 G)

3) 양육 책임감 강화(전형적5)

청소년부모들은 새로운 거주지가 생긴 이후, 이전에 형성된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감이 더 강화되는 것을 경험했다. 자녀를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 키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부모로서의 더 강한 바람과 이미지를 형성해 가고 있었다.

애가, 뭐 나중에 애기 커서 뭐, 그때 돼서 해도 되니까. 조금이라도 크면, 지금은 너무 갖난쟁이라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은 너무..., 그런, 공부에 매달리기보다는 빨리 그냥 돈 벌고, 애랑 좀 놀고, 키워 놓고 다른 걸 하든지. 그래도 될 거 같아서요. (사례 F)

애랑 단들이 살았을 때는 약간 많이도, 많이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둘이 있을 때에는, 이런저런 생각도 하면서 같이 이제, 막 놀러다니고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뭐 담배를 사서 피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좀 자유를 누렸는데.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들을. 청소년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모든 걸 다 느꼈고 그러면서 이렇게 놀았는데. 제가 좀, 밖에서 많이 지내다 보니까. 약간 여기 와서는 좀 불편한 점도 많이 있긴 하고. 일단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긴, 많긴 한데. (사례 I, 여)

저는 그렇게까지 될 그렇게 바라진 않고 그냥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경험이잖아요. 사고를 쳤, 사고를 쳤는데 약간 제 생각에는 뭔가 좀 많

이 확고해요, 애랑은 다르게. 애는 ‘뭐 사고를 쳐도 그걸 감싸주자.’ 그런데 웬만큼 감싸주되 이제 생각은 애가 만약에 계속 그게 똑같은 거기에 맴들면 애가 재판을 보고 또 합의금 넣어 가지고 이제 저희도 힘들어지잖아요. 만약 그렇게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저도 막 그런 시기를 겪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네가 한번 가서 정신을 차려라.” 정신 못 차리는 거 그냥.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약간 너무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될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사례 J, 남)

언젠가는 따로 결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뭐 애 아빠랑도 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옆에서 누가 또 같이 돌봐줬으면 좋겠다 싶기는 해요. 나 중애라도 결혼을 하거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아이를 같이 돌보고, 아이도 같이 책임지고 같이 키울 수 있는 사람. (사례 C)

4) 애정적 양육 태도로의 전환(변동적3)

심리적 안정감과 양육 책임감의 강화는 자녀에게 대한 애정적인 양육 태도로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전의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부모의 우울감과 좁고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으로 인한 답답함은 자녀의 행동을 자꾸 통제하는 태도를 갖게 했던 것에 반해, 주거 안정을 통해 형성된 심리적 안정감은 어린 자녀에게 좀 더 허용적이고 애정적인 양육 태도를 발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근데 고민했던 어떤 시기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지금 출산해 가지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너무 힘들 땐 진짜 너무 미쳐버릴 것 같고, 애가 크고 막 애가 노는 거 보면 저도 막 같이 좋고... 너무 울고 막 애가 너무 정신을 쏙 빼놓을 때는 진짜 미쳐버리게 너무 힘들고. (사례 J, 남)

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엄마랑 동생이 있으니까 둘 다 일을 하는데,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애기가 많이 울었거든요, 밤에. 그래서 애기한테 저도 모르게 화내게 되더라고요. 그만 좀 울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애기가 울어도 천천히 달래주고. (사례 G)

애기도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만큼 다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먹으면 애도 스트레스 덜 받고, 저도 스트레스 덜 받고. 왜냐면 그전에는 집 어질러 놓으면 흘릴까 봐 그게 싫어가지고 막 떠먹여 주고 그랬거든요. 방이 좁으니까 돌아다니면 다 밟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그 밤에 또다시 막 청소기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그러면 또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막 제가 다 먹여주고 못 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냥 ‘너 해 보고 싶은 대로 먹어봐라’ 하고 내버려두게 돼도 딱 그 공간만 치

우면 되니까 이제 좀 덜 어질러지는 느낌? 스트레스를 덜 받는 느낌? (사례 E)

예전에는 그래 가지고 애한테 안방 이상 판 데 못 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더럽기도 하고 이러니까 다른 데 못 가게 하고 되게 막았었거든요. 근데 이젠 좀 “자유롭게 좀 놀아라.” 라고 해요. 그리고 막, 뭐였지? 막 더러우니까 진짜 못 쓰는 공간 너무 작아가지고 같은 평수랑 진짜 너무 달랐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는 진짜 언덕도 언덕인데 또 뭐 사러 나가려면 진짜 한참을 쭉 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나마 애기가 뭐 먹고 싶다 하면 바로 여기 마트 같은 그런 시설도 좀 있고 시장이 저쪽에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집에 뭐 많이 사두는 편도 아닌데 애가 뭐 먹고 싶다 하면 되게 난감했었거든요. (사례 D)

5) 청결한 환경유지 욕구(변동적1)

변동적 범주이긴 하지만, 면담에 참여한 청소년부모들 중 사례 D는 주거지원 이후 새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집을 더 청결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싶은 욕구를 보였다. 이전의 좁고 비위생적이었던 원룸은 정리해도 그 표시가 잘 나지 않고 금방 다시 지저분해지는 일의 반복으로 청결함을 유지하고 싶은 의지를 매번 꺾어버렸다면, 좀 더 넓어지고 깨끗해진 집은 초기에 맞이한 깨끗한 환경을 잘 관리해서 유지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하는 생활 관리의 모습이 스스로에게서 발휘되는 것도 주거지원 이후 나타난 변화 중 하나였다.

예전에 (집에 대해서) 진짜 아예 손 댄것거든요. 집안일 같은 거. 아니, 치위도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바닥 닦아도 아니, 이게 닦은 건지 안 닦은 건지 진짜 티도 안 나고. 그런데 예전보단 좀 이렇게 한 번 치울 때는 되게 잘 치우면 되게 깔끔해 보여요. 며칠 못 가기는 하는데. 하여튼 청소도 좀 그나마 좀 더 잘 되고 있고. (사례 D)

3. 경제적 상황의 변화

주거지원 이후 나타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는 생활비 지출의 증가(일반적 10), 주거비 지출의 안정(전형적7)이 나타났다.

1) 생활비 지출의 증가(일반적10)

청소년부모들은 현재의 거주지로 옮긴 이후, 자신들의 생활비 지출은 오히려 주거 지원 이전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에 의지했던 부모 또는 시설로부터 독립을 하고 공간이 넓어진 데 따른 것으로 생활비로 활용되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과 가스비, 전기세 등과 관련된 주거 유지 비용이 있는데, 수급 비용이나 개인의 소득으로 그 모든 것을 충당하게 됨으로 인해 생활비가 증가하였다.

아무래도 비용이 2인 가구로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출산하면서 이제 전기세라든지 가스비도 좀 더 할인이 들어가고요, 전보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어... 다른 기관에서 이제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기저귀라든지 분유라든지 요런 거 한 달에 10만 원 미만으로, 뭐 구매하는 거를 보내주면은 거기에서 구매를 해서, 그거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지원받고 있어요. 주거지원, 그거 어쨌든..., 받고. 그 뭐지? 수급비 들어오고, 주거지원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세랑 가스비는 제가 그렇게 크게 나가는 돈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냥 아예 빵원이라 생각하면은, 예, 되고요. 그리고, 어... 분유랑 요런 것도 지원받고 있어서, 근데 한 번씩 모자라면 제가 한두 개씩 사기는 해요. 어, 근데 제대로 계산은 안 해봤는데. 네, 그 정도 쓰고. (사례 F)

아무래도 그전에는 이자 이런 게 안 나갔는데, 지금 이자하고 애기랑 둘이 생활해야 되니까 생활비로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기는 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아무래도 생활비도... 엄마가 사 주시고 이러니까, 기저귀는, 기저귀 만일에 국가에서 금액이 3개월마다 19만 원씩 나와서 그걸로 기저귀는 사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양육 수당이랑 한부모 수당 나오는 거 (70만 원) 쓰고. (사례 G)

생활비는 장보는 거에 많이 쓰는데, 먹는 거에 제일 많이 들어요. 우리 거랑, 그다음에 아이 꺼. (사례 I, 여)

2) 주거비 지출의 안정(전형적7)

하지만 청소년부모들은 현재의 거주지로 옮기면서 생활비 지출이 증가되었다고 인식하는 반면, 주거비 지출에 있어서는 안정되었다는 것이 전형적인 범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면서 임대인이 공공기관으로 바뀌다보니 월세 독촉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었고, 월세가 기존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내로 줄어들다 보니 실

제 필요한 생활비에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단은 월세는, 월세를 안 내면 독촉 전화가 오고 싶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집주인이랑 계약하는 게 아니라 LH랑 계약하는 거여서 제가 혹시라도 뭐 조금 사정이 힘들어서 뭐 이자를 조금 늦는다고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독촉 안 받는 약간 좀 마음에, 마음이 놓여요. (사례 A)

전세가 이제 6,000(만 원)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내는 게 이제 보증금 5%니까 300만 원. 300(만 원)을 집주인 아저씨한테 보내고 100(만 원)은 제가 이제 들어가서, 월세는 관리비만 7만 원씩 있고. (사례 B)

(주거비 부담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때는 애기에 대한 걸 아예 다 못 해줬었으니까. 근데 진짜 그때는 베이비키트에 딸려오는 옷들만 입고 생활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냥 옷 한 벌이라도 사줄 수 있으니까. 월세 35만 원을 생활비로 쓰다 보니까. 애기 옷 한 벌이라도 사줄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 같고. (사례 E)

4. 새로운 장래 계획

청소년부모들은 주거지원 이후 주거 환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장래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당장 먹고사는 일과 거주할 곳을 찾는 일에 급급했던 이전 생활에 비해, 자녀와 부모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학업 지속 의지(변동적4), 직업 및 취업에 대한 희망(전형적7), 주거 마련 의지(전형적5)로 나타났다.

1) 학업 지속 의지(변동적4)

새로운 거주지에서 청소년부모들은 학업 지속 의지가 생겼고, 검정고시를 시작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는 계획이 생기기도 하였다.

일단 여기(세집) 가서 이제 애기 어린이집 보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검정고시 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좀 개인 시간이 생기니까, 애기 보내고. (사례 A)

그냥... 아직까지 뭐 자격증도 딴 것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이제 검정고시 따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 검정고시는 이미 뺐어요. (사례 I, 여)

제가 지금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 그리고 바로 자격증 쪽으로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엄마, 아빠로서 사회생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반 잡아놓고 난 뒤에. (사례 J, 남)

2) 직업 및 취업에 대한 희망(전형적7)

청소년부모들은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취업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되었다. 청소년부모들이 주로 생각하고 있는 직업으로는 간호조무사, 애견미용사, 요양보호사 등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따라 선택하려고 하는 진로이기 보다는 당장의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유도된 직업의 종류로서 자격증 취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저는 집이 생기고 나서 그거를, 완전히 내 진로를(정했어요). 해야겠다. 그전까지 되게 막 이렇게 왔다갔다 했었거든요. 미용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간호 쪽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되게 많았는데, 이제 딱 집이 생기고 나서 이제 월세 나갈 돈도 없고 딱히 없으니까 이제 일을, 이제 국비 지원으로 이런 것도 지원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하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니까 “아, 그럼 나 진짜 애견 미용으로 이제 가야겠다.” 하고 이게 딱 이렇게 확정이 된 거예요. (사례 H)

취업은 이제 곧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공부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부동산 공부하고 있어서, 일단 자격증 시험 합격하는 게 목표여서, 집 정해지고 나서부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되게, 그전에는 딱히 공부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사례 G)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더 하거나, 저는 3년 후쯤. 애기가 어린이집에 일단 들어갈 때쯤. 3년. 아이를 키우고 나서, 키우고 나서. 저는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애견 카페거든요. 그래 가지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하나 따고, 그리고 또 강아지도 키우고 막 이런 준비를 하나하나 하면서 돈도 모으고 해서 애견 카페를 차려서 거기서 놀려고요. (사례 J, 남)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많이 공부하고 있어 가지고. 유튜브 보는 게 다 이긴 한데. 그래도 저한테는 이게 학습, 학습이고 저한테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그거라서. (사례 I, 남)

3) 주거 마련 의지(전형적5)

청소년부모들은 기관의 지원과 임대주택을 새로 마련한 이후, 앞으로 더 안정된 주거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는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지원하고 선정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학습한 데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학습된 경험이 이후 주거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정보에 대한 탐색, 자격 확보, 재정 관리 등이 포함되었다.

저는 일단은, 일단은 계속 LH로 살다가 그 뒤에 또 LH를 계약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면 또 연장을 하고요. 안 되면 다른 데로 알아보거나, 그리고 나서 일단, 일단은 그럴 생각이예요. (사례 H)

(집이) 2년마다 갱신해서 최대 10년까지라고. 지금 찾아보니까 계속 완화돼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한부모가 원래는 만 6세 아동까지였는데 지금은 한부모일 때 아이가 청소년 18세인가까지 이제 계속 갱신할 수 있다고 하니까 10년을, 10년까지는 안 살더라도 돈을 모아야죠.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돈을 모아서 제 힘으로 제가 구해야겠죠. 계속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살 수 있을 만큼, 도움 받을 수 있을 만큼은 받아도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은 또 제가 해야 되니까. (사례 B)

(재무관리를 받고 있어서) 저희는 좋죠. 돈 관리가 잘되니까. 저희가 돈 관리 안 했을 때는 진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고, 그냥 진짜 정말 너무 막 썼거든요. 그러니까 안 남았지. 그래 가지고 그 후에는 저희도 뭔가 돈 관리해서 애기도 생각하고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만족해요. (사례 J, 남)

그러니까 저는 대체적으로 (재무관리 받으면서) 그런 쪽에서는 지금도 솔직히 꿈은 꾸죠. 그때 당시 되면 우리 진짜 예쁜 집 구하자고, 그렇죠. 보증금 같은 건 아직 마련하기엔 많이 부담되는 금액이어서. (사례 J, 여)

5. 자녀 돌봄의 문제 지속

주거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들이 자녀 양육 태도가 변화되고, 양육 책임감이 더 강

화되며,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거주 환경을 갖게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녀 돌봄의 문제가 남아있었다. 이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의 지속(전형적8), 취업의 제약(전형적5), 부모 역할 지원 부재(변동적4)와 관련되었다.

1) 경제적 어려움의 지속(전형적8)

청소년부모들은 기관의 지원과 임대주택을 새로 마련한 이후, 앞으로 더 안정된 주거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거 문제를 해결한 후 생계와 양육비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거나 어려움을 단기에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죠. 아니, 콜센터 막 이런 데 아니더라도 하여튼 대부분 막 이렇게 요즘 파트타임도 그렇게 안 뽑거든요.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그런 건 좀 그래도 조금 있는데, 그런 걸 하면 소득 기준을 또 넘겨버리고 되게 애매한 거예요. 안 그래도 파트타임이 있으면 좀 다행인데 진짜 아예 없어요. (소득이 기준에 비해) 그렇다고 많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되게 애매하게 넘어가니까. (사례 D)

생활비 문제는 있는데. 애가 크고 있고, 나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일단 애 크는 게 더 문제인 거죠. 크는데 뭐라도 하나 더해 주려면은..., 그렇다고 애가 뭐 계속 애기 때마냥 간단한 걸 갖고 노는 애도 아니고. 양육비랑 나중에 이제 교육비 문제도 있네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래서 애기 학습지를 하나 시키려고 하면은 그게 3과목 하는데 9만4000원이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한 3개월의 고민을 해서 애기를 시키는데... 12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뭐 150, 160(만 원)까지는 생각을 해줘야 만약 알바를 50만 원 정도 받아도 그래 봤자 140(만 원)인데. 그거 둘이서 솔직히 140(만 원)으로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93만 원 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걸로 생활하라 이렇게 얘길 하면은 솔직히 많이 힘들죠. 그리고 ‘또 이걸 안 받을 거면은 그냥 일을 하라’ 이건데, 근데 일을 하면은 실제로 또 그렇게 많은, 거의 종일 일하는데 200만 원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정해져 있어 가지고. (사례 E)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도움 받으면 좋긴 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수급자 돼 있으면, 진짜..., 아유, 이사하려고 돈 모으려 했는데. 아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못 모아가지고. 최대한, 그거, 수급자는, 무보증금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다 하길래, 지금 아무래도 그 집 찾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례 F)

‘아, 혼자 키우는 게 많이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금전적인 문제를 빼고는. (사례 H)

그것(기초생활수급비) 때문에 저희가 혼인신고를 못 했어요. 미혼, 미혼 그게 “혼인이 되어 있으면 우린 지원을 못 해준다. 그러니까 그걸 좀 미루되 좀 이 지원을 받는 게 어떡냐.” 하면서 “알겠다.” 하고 그걸 받았어요. (사례 J, 남)

기초생활수급비가 필요하지만, 왕래가 없는 원가족인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부양의무에 대해서 공지하여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청소년 부모는 공공임대주택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거지원 조건과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정보 접근의 취약성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지속하기도 하였다.

부모님, 이제 저는 아빠랑 이혼을 한 상태인데 아빠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왜 부양할 생각이 없냐?” 하고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연락 생전 안 하고 살았었는데. (사례 G)

그냥 생활이 가능하게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집을 주거나, 그러니까 주진 못 해도 이제 유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어린이집을 가고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년이라도 집을 이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런 거 거주할 수 있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거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자립 기간을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이자를 내면서 자립 기간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죠. (사례 A)

아직까지는(계약연장할 생각이 있어요). 무슨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부모 자격 유지? 이런 거. 한부모 아니면, 한부모였나? 하여튼 돈을 너무 많이 벌어도 안 되고 또 적게 벌어도 안 되고 약간 이런 거? 아니,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안 나와버리니까. 또 그렇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럼 또 애기한테 또 소홀해지고 막 이런 게 되게 복잡해요. (사례 G)

2) 취업의 제약(전형적5)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게 되었지만, 청소년부모로서 취업을 하기란 쉽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상황은 정보에 취약하고 저소득층인 청소년부모들이 자격 취득 및 취업을 하기에 더 큰 제약이 되고 있었다.

(애견미용사 시험) 한 해 2번, 3번 있는데, 그중에 벌써 한 번이 취소된...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근데 여름에도 취소됐을 거예요. 이번에도 취소 됐을 텐데. (사례 H)

사람들이 잘 안 뽑아요. 근데 저는 약간 경력이 좀 많, 엄청 많거든요. 서빙 일만도 2년, 2년 넘고. 막 설거지도 거의 한, 거의 1년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쉽게 뽑히는 거 같은데 약간 남자친구는..., 잘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청소년들이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음 좋겠어요. (사례 I, 여)

3) 부모 역할 지원 부재(변동적4)

청소년부모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됨으로써 부모 역할에 대한 준비와 연습이 없었고, 특히 주변에 자녀 돌봄이나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원가족이나 지원이 없는 상태라서, 여전히 부모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주거를 해결하더라도 청소년부모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영역이었다.

막상 낳고 보니까 그런 여건이 아예 안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이다보니까 뭘 할지도 모르고, 물어볼 사람은 없고요. 제 또래 애들은 다 학교 다닐 때인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애기를 어떻게 키우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케어하는지도 모르겠고. (사례 I, 여)

아이 양육하는데, 일단 교육하는 게 조금 힘들죠. 처음이니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을 많이 서투르고요. (사례 H)

6. 사회적 불안

주거를 마련함으로써 얻게 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들의 사회적 긴장감과 불안함은 그들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속되고 있었다. 먼저 사회로부터 불편한 시선을 받고 있었으며(변동적4), 원가족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 기대감도 가져 보았지만, 기존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음(변동적2)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1) 불편한 사회적 시선(변동적4)

청소년부모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부터 사회적으로 불편한 시선을 경험하고 있었고, 어린 나이에 자녀를 양육 중인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시선으로 인한 긴장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냥 뭐 심리적으로 편안해진 것도 있고 불안해진 것도 있고 저는 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불안이 나타나고 안정이 나타나는... 같이 양육을 하시던 분이 있다가,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저도 보호, 그러니까 효진 씨도 보호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 돌봐주긴 하셨지만. 혼자 그냥 나이 들어서 독립을 했던 거라면 지금이랑 같은 불안감은 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례 C)

아무래도..., 여자 혼자니까 조금, 무섭기는 해요. 그전에는..., 일단 눈앞에만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당장 수급자 되면은, 뭐 당장은 먹고살겠지. 그리고 이제는 수급자가 됐으니까, 지금은 먹고살지만, 내가 일을 해야지 먹고사니까. 예예.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 지고, 빨리 일하고 싶은데, 또 애를 빨리 어린이집 보내자니 마음이 좀 그래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데리고 있으려고요. 어차피, 간호조무사 학원도 알아보니까, 내년 3월? 돼야지 개강이더라고요. (사례 F)

사람들 시선이 불편한 정도. 심지어 병원도 나보고 지우는 걸 권고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 병원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고요, 제가. 병원을 원래 싫어하거든요. 병원도 자주 가야 되잖아요. 소아과 가거나 이제 그렇게 자주해야 되잖아요. (사례 I, 여)

(나 여기 집에 이사왔다라는 말이나)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연락을 하고 싶거나 그런..., 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례 I, 여)

2) 원가족과 관계 회복의 제약(변동적2)

주거지원을 받음으로써 원가족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었다. 주거지원을 통해 안정된 집이 생기고 가정을 꾸리긴 했지만, 그것이 원가족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거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이웃이 가진 편견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사례 C).

원래 처음에 (새집) 들어갔을 때만 해도 연장해서, 연장이 된다면 재계약해서 계속 쪽 살고 싶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살짝 생각이 바뀐 게 제가 (친정)엄마랑 사이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항상 마주치면 “아빠는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많이 여쭙보시거든요. 그럼 그냥 뭐 “일 갔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친정)엄마 때문에. 그런데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그래 가지고 그냥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어요. 아예 조금 여기서 거리가 먼(곳으로 가고 싶어요). (사례 C)

말하자면 청소년부모들 중에서는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서, 자신이 만든 가정과 가족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 경험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원 이전과 이후의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물리적 환경에서 느끼는 변화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주거지원 이전의 열악한 주거 상황에서 임신·출산기를 보냈다. 주거지원 이전에는 대체로 오래되고 좁은 원룸 또는 비위생적인 주거 생활이었다면, 주거지원 이후에는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보되고 청결한 주거 공간을 가질 수 있었다. 주거지원 이후로 물리적으로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만족도도 높았다. 이러한 주거 환경은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육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된다. 청소년부모들이 원가족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고 복지 시설에서의 공동생활이 쉽지 않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임신·출산기부터 거주하는 물리적 공간이 어디인지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지원방안 중에서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주거지원 이후 청소년부모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심리적 안정감이었다. 이들은 주거지원 이전에는 정서적 상태로서 양육 책임감과 함께 양육 우울증을 느끼는 변동적 사례들이 있었다. 주거지원 이후에는 정서적 상태와 관련 있는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거나(전형적8), 양육 책임감이 더 강해지거나(변동적5), 혹은 양육 태도가 더 애정적인 태도로 바뀌는 것을(변동적3) 통하여 심리적 상태가 변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주거 안정을 통해 형성된 심리적 안정감으로 인해 허용적이고 애정적인 양육

태도를 발휘하게 되고, 자녀를 더 잘 키워야겠다는 책임감도 강해지게 한 것이다. 특히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열악한 물리적 주거 환경이 개인의 정체성과 안전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를 증가시키고 양육자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강지영, 2017), 양육 태도의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는 자신의 거주 공간이 좋아지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불편함을 덜 느끼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단편적인 생계 지원이 아니라 청소년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가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포용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으며,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혼모의 경우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그 요인에는 대개 혼자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활동과 자녀 양육, 사회적 자본의 감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윤정, 2019). 본 면담을 통해서도 청소년부모의 경우, 기존의 요소들에 더해 주거의 불안정성도 양육 스트레스 요인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주거지원 이후에도 주거지원 이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부모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생계비 지출 수준이나 범위가 달라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실제 생계를 위해 쓸 수 있는 비용이 늘어났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부모가 향후 생계비를 마련하고 더 증대해 가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은 취업의 제한을 발생시키고 청소년부모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더 크게 경험되고 있음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었다. 청소년부모들이 주로 종사하던 근로 활동이 대부분 단기 계약직이고 대면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들의 경제활동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면담 조사의 연구참여자 중에는 대면 자격시험이 취소되어 응시도 해보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선 취약계층(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응답자 중 43.5%가 일자리 유지를 꼽았고, ‘생계비’ (15.0%), ‘건강’ (11.8%) 순으로 나타났다(한겨레, 2020). 더욱이 학력과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할 수 있는 직업도 극히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정보도 많이 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최근의 사회현상은 청소년부모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더 심화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이슈 제기와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주거지원 이후에도 주거지원 이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부모들은 사회적 무시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사회적 불안을 겪고 있었다. 청소년부모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이들에게 보내는 불편한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긴장감을 느끼고(변동적4), 스스로 주거 상황 변화로 인한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아직은 사회적 편견에 신경을 쓰는 원가족과 관계 회복을 하는 데 제약(변동적2)이 있었다. 그리고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주거지원 이후 청소년부모들이 반려동물과 거주하는 사례(변동적3)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심리는 심리적 불안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국희, 2019; 허영태, 박춘성, 2019)에서 이 역시 사회적 무시에 대한 나름의 안정감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보였다. 따라서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배제와 사회적 무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문화 개선이 필요한데, 주거지원은 제도적으로 이들을 포용하는 시작점일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내에 편입되기 위한 일정한 터전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원 탐색 과정 및 주거지원 이후에도 청소년부모들은 주거 정보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과 선택에 있어 제한을 경험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입주자 조건, 주택 유형 등이 매우 다양하다(한국주거학회, 2007). 따라서 이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일반인에게도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특히, 청소년부모들은 ‘주거’를 마련하거나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거나,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같이 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과 연계되었을 경우에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는 청소년부모가 거주 지역의 행정기관과 복지기관을 통해서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 또는 인적 자원을 포함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V. 주거지원 담당자 면담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주거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담당자 1명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면담 대상자의 주거지원 경험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관 담당자로서 느끼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한계와 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면담에 참여한 주거지원 담당자는 2017년부터 트라이앵글 사업을 담당한 자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소지한 주거 전문가이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미혼모거점기관 사례 담당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 어려움에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특히, 주거의 불안정함이 삶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 분야에 대한 특화된 지식으로 단순 심리·정서 지원을 넘어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트라이앵글 사업의 주거지원 컨설팅은 모두 면담에 참여한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기초 상담 이외에도 주거 지원 대상자와 장기간 라포르 형성으로 비공식적 사후관리까지 진행하며 주거지원 대상자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청소년부모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게 하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담당자를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자 2인과 함께 지난 2020년 10월 16일에 약 2시간 동안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 <표 V-1>과 같다.

기관 담당자와의 면담 역시 담당자 동의하에 녹음을 하였고, 이는 모두 Microsoft word로 전사하여 질적자료 소프트웨어인 Nvivo12를 통해 코딩 및 질적 내용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총 135개의 코드가 도출되었으며, 이 중 사업 개요와 특성에 대한 내용 외에 주거지원 대상자로서 청소년부모의 특성, 주거지원의 의의, 주거지원의 한계와 요구로 구분된 결과로 각 20개, 18개, 31개의 코드가 도출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다음 절에서 분석된 결과를 나타내고자 한다.

<표 V-1> 면담 주요 질문

영역	질문 내용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지원사업 시작 시기와 사업 기간, 기관 내 주거지원사업 담당자 현황 ·청소년부모가 사업 대상이 된 계기, 특별히 주거지원에 주목하게 된 계기 ·지금까지 대상자 현황 (현재 포함), 사업비 현황 ·다른 기관의 주거지원사업과의 차별성, 사업 목표
주거 지원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이 됩니까? ·일반적인 지원 상담 절차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최종 지원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까? ·최종 지원 수준(지원 금액 및 범위 등)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까? ·사업을 위해 기관 간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업 초기에 전문가 수퍼비전을 통해 보완하며 사업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지원의 어느 단계에서 해당 상담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해결중심 상담기법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상자 1인당 주거지원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업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합니까?
주거 지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지원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 또는 범주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사례관리방법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앞의 사후관리와 중복될 수 있음) ·대상에 대하여 주거지원사업을 한 후, 그 외 다른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어떤 내용과 형태입니까?
주거지원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지원사업을 하면서 만족스럽고 가치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주거지원사업 담당자로서 기대했던 바와 경험한 사업의 효과가 있다면? ·주거지원이 학업이나 취업 등에 대한 개시 혹은 지속 동기를 갖게 했다고 보십니까? (실제 인터뷰이 중에서는 주거지원이 핵심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음) ·주거지원 이후에도 대부분 영유아 자녀 돌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대상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와 같은 점들이 청소년부모 이외 성인이 지원 대상자였을 경우와 차이가 있는지?
주거지원 사업의 한계와 향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이나 한계점이 있다면, 무엇 인가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주거지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어떻게 하시는 편입니까? ·주거지원사업의 실패 사례도 있습니까? 어떤 경우였으며,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거지원사업 담당자로서 청소년부모 대상 주거지원사업의 의미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완되거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2절 조사 결과

면담 조사 결과, 기관 담당자와의 면담은 크게 주거지원 대상자로서 경험한 청소년 부모의 특성, 주거지원의 의의 그리고 주거지원의 한계와 요구로 구분될 수 있었다. 이는 앞선 청소년부모(미혼모, 부부)들과의 면담 결과에서 드러난 주거지원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드러낸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원 대상자로서 청소년부모의 특성

1) 경제적 사각지대

담당자가 경험한 청소년부모들은 거의 모두 빚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특성을 보였다. 가장 큰 문제로는 청소년이 19세만 지나면 대출을 권유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금융업계 어른들이었는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을 ‘무보증대출’이라는 말로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제3, 4금융권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짜 서류를 꾸미게 하고 대출로 이끄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것은 보증금이 없어 비싼 월세를 구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이면서 동시에 자립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었다.

기관 담당자: 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특징이 이제 빚이,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 그 사금융, 그런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출을 어떻게 하나면 이렇게 직장은 아닌데 가짜로 막 직장을 다닌다고 써요, 그 대출 사금융에서.

연 구 자: 아!

기관 담당자: 그래 갖고 다 그걸 서류를 꾸며 가지고 수수료 엄청 챙기는 거예요.

연 구 자: 아, 그 서류 꾸미는 거를.

기관 담당자: 예, 그것도 다 해줘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관이 지원하는 월세 지원은 사실상 ‘채납월세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청소년부모들의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기보다 ‘빈 독에 물 붓기’ 형태로 ‘그냥 날아가는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

어, 그러니까 월세 지원은 체납 월세를 주로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빈 독에 물 붓기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그냥 날아가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그냥 받으면은 불안한 감은 없어지겠죠, 밀렸던. 근데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 있고….

2) 필수 정보로부터의 소외

기관에서 미혼모의 주거 상황을 파악할 때 성인 미혼모들은 시행되고 있는 주거지원제도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반해, 청소년미혼모들은 제도에 대한 정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미혼모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임신 여부를 인증하고 들어가는 ‘오픈채팅방’이나 ‘맘카페’ 같은 곳을 배회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보 자체도 서울과 지방 사이에는 차이가 많이 나기도 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미혼모일수록 필수 정보로부터 배제돼 있는 것이다.

서울은, 서울이나 이런 데는 엄마들이 이미 빠삭하게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청소년들도. 근데 지방하고 서울시, 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지, 지방은 자원도 별로 없고, 정보도 별로 없고, 근데 여기는 서울은, 정보를 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요. 청소년들도. 그게 조금 차이예요. 차이죠. 차이.

그뿐만 아니라 정보를 접하게 되더라도 당장의 시급한 필요가 주거지원이라는 점에 대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정보에 대한 독해력, PC 사용법에 대한 무지 등이 제공된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어,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만약에 그조차도 신혼부부전세임대라는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대상이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직관적으로 신혼부부, 우리 신혼부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것도 설명을, 제도도 설명해 주고 본인이 대상이 된다는 것도 설명해 주고 그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다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러 번 통화를 할 수밖에 없고….

3) 사회적 무시로부터의 위축

청소년미혼모는 기본적으로 ‘어른에 대한 경계’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사회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무시와 차별이 그 원인이 되고 있었다. 청소년미

혼모들은 기관 담당자와의 지속된 소통을 통해 라포르가 형성될 즈음이면 사회 속에서 경험한 부당함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생활고로 수도요금이 체납된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씻기기 위해 수도요금체납 등으로 긴급생계비지원과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동주민센터에 문의했지만 ‘부양의무자 동의’ 라는 제도적 한계로 처음에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담당자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청소년미혼모의 경우에는 ‘안 된다’ 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일일이, 그리고 저를 만나는 친구들이나 그렇게 해결이 되지, 대부분 청소년미혼모들이 가서 성인 미혼모랑 좀 다른 게, 가서 “안 된다.” 라고 하면 그냥 돌아와요, 안 되는 줄 알고.

4) 경험해 보지 못한 친밀감에 대한 욕구

주거지원 대상자로서 청소년부모들이 보인 또 다른 특성으로는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하는 모습이였다. 이는 자신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모습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기관 담당자가 보기에 청소년부모 대부분은 원가족에게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경험으로 인해 자신이 꿈꾸는 가정환경을 이뤄가기 어려워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연구자: 아니, 근데 만난, 분들 중에 보면은, 저는 그 생각도 되게 신기하긴 했거든요. 그, 본인이 이제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고, 가족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내 아이를 어쨌든 출산해서 뭔가 그 자녀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관 담당자: 네, 가족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지. 나는 그렇게 받았지만, 내 가족을 만들어서 나는, 정말 알콩달콩 내가 이제 꿈꾸는 그런 가족을 만들고 싶, 근데 마음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안타까운 거지.

2. 청소년부모 대상 주거지원의 의의

1) 생계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담당자는 트라이앵글 사업을 맡으면서 청소년부모의 생계비보다 주거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긴급 생계비는 정부의 제도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기관에서는 청소년부모 입장에서 큰 지출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 것이다. 1회라도 100만 원 단위의 보증금 지원은 단기적인 소액 지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 제도 사각지대에서 정말 필요하고도 시급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최소 거주 2년은 보장되는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안내하고 이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기관 예산 외에도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신청서를 통해 청소년부모 개인으로서는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 결과 실제 긴급 생계비를 기관으로 문의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보았다.

저희도 처음에 그래서 일반,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 안 하고 넘어갔던 거는 그러니까 일반 주택을 얻었을 때 보증금 지원을 지양을 했어요. 예, 아까 똑같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주택을 얻는 거는 어, 금방 보증금을 까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증금이 월세를 대부분 얻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 방식, 가장 접근성, 청약저축이 없어도 접근성이 가장 좋았던 거는 신혼부부전세임대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거의 최소한 2년은 보장될 거잖아요. 그 집에.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정부 지원 주택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컨설팅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증금을 낮, 뭐 신청서 해서 지원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2년은 보장되니까, 함부로 못 나가니까.

담당자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비 외에 청소년부모들의 부채도 조사하기 시작해서 이 문제의 해결까지 돕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거지원의 접근은 청소년부모의 생계비가 생계에 필요한 부분 외에 다른 주거비 등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주는 것으로서 ‘생계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 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상담했을 때 보니까 기본 정보는 물어보긴 하는데 뭐 주거 상황이라든지 그냥 그걸 물어보기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이 주거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데 여기서 해결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부채가, 부채에 대해선 전혀 묻지 않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부채도 저희가 건드렸어요. 주거와 부채를 같이 건드려서 생계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취했다는 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거든요.

2)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진입 요건

트라이앵글 사업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주거지원에 초점을 둔 맞춤형 컨설팅에 있다. 이 과정에서 ‘청약 지원’은 청소년부모로 하여금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게 하고 월 2만 원씩 10회 지원을 해주었다. 이는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우선순위가 되는 입주 자격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다. 청소년부모들이 입주 자격을 갖추는 것은 시민이자 지역주민으로서 공식적인 정부 주택 제도에 진입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자립 의지를 키워준다는 의미도 있었다.

청약 지원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었나 하면 어, 내가 만약에 2만 원 청약을 부었어. 그러면은 거기에 플러스 2만 원을 매칭을 해서 10회, 처음에 6회까지 지원을 했었어요. 나중에 늘렸지만. 이거는 어떤 의미로 청약 지원을 했냐면 임대주택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매입 임대라는 거는 청약이 몇 회 이상 지나, 그 불입이 됐으면 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 순위일 때 가점을 계산해 가지고, 우선순위 입주권을 주기, 입주 자격을 주는데 거기에 청약이 거의 이제 2점, 3점 이렇게 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청약 지원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어, 예. 본인이 또 그거를 어, 청약, 이렇게 저축을 하는 의미도 있었고.

이러한 지원사업의 기저에는 청소년부모들이 임시보호시설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와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담당자의 사업 방향성이 깔려 있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의 다른 미혼모들과도 의지가 되도록 서로 연결해 주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 청소년부모들이 위축되어 있는 심리적 장벽을 깨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 있게 살아가도록 관계의 문을 열어주는 또 하나의 진입 요건이 되고 있었다.

여기, 어제, 이제 제가 전화를 했던 건 안부도, 이제 사례는 다 종료됐지만, 안부도 안부지만, 그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의지가 되게끔 소개를 해주려고. 왜냐하면 내가 만났던 친구는, 그렇게 서로, 미혼모끼리 이렇게 의지가 되게끔, 연결을 해줘요. 언니, 동생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같은 처지에 이제 의논하게 하려고...

3) 전반적인 삶의 개선책

담당자가 보기에 주거지원사업은 단순히 주거 문제해결뿐 아니라, 청소년부모의 삶 전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주거 마련이 직장을 구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다른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

하는 것이다. 청소년부모 당사자들은 이 부분을 예민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담당자가 보기에 이는 매우 ‘큰 변화’이며, 주거 불안정이 주던 불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이기도 했다.

기관 담당자: 사실은 찜질방에서, 일반 주거를 얻어서..., 살 수 있다는 게. 그쵸. 이게 극적인 변화 아닌가요?

연구자: 극적인 변화긴 하죠. 맞아요.

기관 담당자: 네. 그리고 반지하에서, 살다가, 일반 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된 거. 옥탑방에 살다가, 일반 주택으로 간 거.

연구자: 저희 만났던 케이스 중에서 왜 노숙하다가 이제 뭐, 집 얻은 경우도 있었고.

기관 담당자: 네, 맞아요. 노숙하다가 집 얻은 경우. 그러니까, 근데 이런 차이는 있는 거 같아요. 본인이, 어..., 사실은 노숙하는 거 상태에서 여기서 조금 더, 뭐 머물 곳이 있다. 이, 이게, 본인한테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되게 극적인 변환데 본인이 스스로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했던 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담당자는 주거지원이 ‘청소년부모들의 삶을 업그레이드할 여지를 만들어주는 기반’ 이라고 보았다.

저 개인적인 거는, 주거가 안정된다는 거는. 다시, 다른 새로운 일을 모색할 수 있는, 그, 그래 여지가 생기는 거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일이 됐든, 학업이 됐든, 자기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게 주거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로 주거지원사업에서 치과 치료를 지원하게 된 일이 있었다. 주거지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인 청소년미혼모가 건강보험료도 못 내고 아이를 키우고 있음에도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대상자의 앞니가 발치되어 있는 특수 상황 역시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제약이 된다는 담당자의 판단으로 방송 모금을 통해 마련한 지원금으로 주거지원과 더불어 치과 치료까지 제공한 사례였다.

그 친구를 만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가 하나하나 해결이 되니까, 이렇게 이빨이 또, 치료를 받으니까. 되게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학,

학력을 따라 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어... 이 친구가 학교를 그만둔 지 되게 오래된 상황인 거야. 근데 갑자기 검정고시를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중학교 몇 학년까지 다녔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2학년까지 다녔대요. 그럼 1년만 다니면 될 거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막 그런 고민을 말하던 중에, 어느 분이, 중학교도 검, 저기 방송통신중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통신중학교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그거 정보를 줘서 방송통신중학교에 편입을 해서 올해 졸업을 해요.

결국 대상자는 안정된 주거상황 해결을 기반으로 치과 치료를 통한 사회생활의 자신감 회복이 이루어지고, 못 다한 학업을 지속해 나가며 자녀를 양육하는 전반적인 삶의 개선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담당자는 민간기관이 담당해야 할 일은 청소년부모의 삶 전반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4) 정보 수혜자에서 전달자로의 역할 변화

기관 담당자는 주거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 대상자들이 ‘정보 수혜자’에서 ‘전달자’로 역할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도 했다.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주변에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청소년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부모 스스로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을 학습한 결과이면서 자존감을 향상하는 과정이자 기관 담당자가 의도했던 ‘더 나은 삶을 위한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시작되는 모습이었다.

그 친구한테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도 이제, 자신감이 생겨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목소리도 밝아지고, 자기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제 본인이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본인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정보를 줘서 그 사람도 그런 거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본인이 도와주는 거다. 돈으로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그랬더니, “아, 그럼 선생님, 여기 애 셋 있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도 맨날 이렇게 알바하고 그러는데 집도 열악한데 그 언니도 도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 한 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려준 거예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그 친구, 그분도 전세 임대가 돼서 옮겨간 거예요, 집을 (중략) 선순환을 시키는 고리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데 내가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붙여줄 만한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3. 청소년부모 대상 주거지원의 한계와 요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은 삶의 개선을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더 많은 청소년부모가 공적 제도 안에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었다. 특히, 민간기관에서 주거지원을 운영하는 담당자로서 느끼는 한계와 이에 따른 정책적 요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명확한 정보 전달의 부족

기관 담당자는 청소년부모 당사자가 스스로 주거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그 정보가 전달되고 있지 않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행정기관 담당자조차 청소년부모 대상의 주거지원제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전세임대’ 라도 임신부가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몰라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든가, 수도요금 체납이 3개월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긴급복지지원법」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 임신·출산기 또는 양육 과정에 있는 청소년부모를 미미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선 몰라요. 이거는, 일반인 대상으로도 하는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만, 이 특화돼서 지원대상인 거는 동주민센터에서 이제 100%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몰라요. 대상이 되는지조차 몰라요. 똑같아요. 신혼부부전세임대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만 되는 거야. 이렇게.

또 다른 이유로는 주거지원 정보에 대해 청소년부모들이 제일 많이 탐색하는 방법이 ‘인터넷 검색’ 인데, 실제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했을 때 안전하고 공인된 내용의 정보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령 보게 되더라도 알아보기 쉽게 정리되지 않아서 청소년부모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이는 맘카페나 오픈 채팅방 등을 배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기관

담당자는 우선적으로 기관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키워드 검색이 되도록 홍보 예산을 늘려 청소년부모가 안전한 통로로 정보에 유입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최근에는 청소년 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e-book 제작에 힘을 쏟고 있었다.

저희가, 이 아름다운재단에 주거복지지원사업이 6,350만 원이, 이제 저희 사업인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음, 이번에 홈페이지 아까 키워드 전략적으로 이제 광고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음, 전세임대에 한해서만 이번에 이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신혼부부전세임대 한해서는, 어..., 그들의 언어로 보기 쉬운, 그, 만화 애니메이션처럼 해가지고 이북을 제작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홍보할 거고, 동영상도 이제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튜브 광고를 할 거고. 그거 청소년복지, 그 주거복지, 청소년도우미 홈페이지에도 실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도 실을 거고. 각 기관에 저희가 민간네트워크, 그 연대기관에다가 다 뿌려가지고, 이제, 좀 홍보를 하려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다.

2) 유연하지 못한 제도적 기준

트라이앵글 사업에서는 청소년부모에게 주로 공공임대주택을 안내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택 신청 자격 기준에서 청소년부모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다. 국민임대나 재개발임대를 신청해서 입주하고자 하면 가점이 많아야 하고 보증금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했다. 특히 청소년부부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신혼부부전세임대가 유리하지만, 이것은 실제 해당 매물의 집을 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유연하지 못한 제도적 기준은 청소년부부의 주거 선택지를 매우 제한하는 것이 되고 있었다.

이제 한계가, 또 이제 주거..., 주거, 종류에 대한 선택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 아까 접근성이 좋아서, 이제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들이 이거를 얻으려면, 한 20군데, 30군데를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발품을 엄청나게 팔고 지쳐야, 지칠 정도에 돼서 자기 맘에 드는 주택이 발견이 되는데, 어...,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살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수도권에는 거의 없어요. 네, 서울은 없어요. 거의 매입임대가. 인천, 경기 여기는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청소년부모를 실질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제도적 기준으로는 ‘5% 보증

금' 이 있었다.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면 약 600만 원의 주거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기관 담당자가 보기에 청소년부모에게 600만 원은 6,000만 원과 같은 금액으로 과도하게 큰 액수였다. 특히, 청소년부모는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학력도 낮고 직장 경험도 없는 상황이므로 준비된 게 없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도 안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면담에 참여한 청소년부모들에게서도 언급된 사항으로서 무리한 대출로 빚을 지는 상황에 빠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담당자는 대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보증금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 보증금이 필요하긴 해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대상에 따라 조금, 차등을, 좀 달리 되어 되는데, 청소년한테 600만 원은. 그러니까 미혼모라서가 아니라, 혼자 애를 키우고, 네.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학력도..., 예, 어릴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직장경험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준비된 게 없잖아요.

3) 협력적 거버넌스의 현실적 제약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민간기관으로서 청소년부모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외부 기관과 협력을 통해 필요한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협력하는 기관으로는 민간기관을 포함하여 정부행정기관도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져 효과적인 지원이 실행되는 경우도 물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주거지원의 현실적 제약으로 지적되었다. 민간기관을 향한 방어적 태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이, 게 이제 제가, 외부 신청서를 끌어다가 쓰고. 그다음에 사업이, 그렇게 쪽 한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서 이거하고, 저 사업에서 이거하고, 또 모자라는 거 신청서하고 이렇게..., 여러 자원을 이제 대야 되는 게, 힘들고 (중략) 사실, 이렇게, 얼굴도 안 본 상태에서, 예를 들어 정부기관으로 전화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어..., 방어가 심해요. 니네들이 뭘 아는데? 사실 저는 정부, 지원하는 친구, 그런 정부 지원 기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정부에서, 그 사용하는 매뉴얼을 매년 다운받아요. 그래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Ctrl+F 쳐 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내가 다 확인하고, 검증이 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엄마들한테 듣는 정보가 있어요. 제가 모르는데 “선생님 이게 생겼대요.”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게 생겼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진

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들이 모르는 정보도 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직접 신청자들이, 그 수요자들이, 그런, 찾아내서 정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자원 매뉴얼이 다 있지, 플러스 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장, 정보를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정부 기관하고, 사례관리기관 이렇게 조인하는 게 되게, 협력하는 게 되게 어렵고,

물론 협력이 잘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행정기관 담당자에게 지원 대상의 상황을 설명하고 외부 신청서를 요청했을 때, 이를 흔쾌히 수락하여 진행이 이루어진 것이다. 해당 과정을 통해 주무관 역시 지역의 청소년부모 사례를 더 잘 알게 되어 이후 6건이나 추가로 도와준 사례도 있었다. 이는 지원 대상을 중심으로 협력 기관과 담당자 사이의 열린 마음과 협력적 태도가 유익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이제, 아름다운 사례에 이 주무관이, 이런 뭘, 이런 걸 몰랐던 거예요, 많이. 그러다가 이 친구 하면서, 제가 이제 고맙다고 전화를 했어요. 이 친구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주무관님 덕분이다. 공을 이제 그분한테 돌린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저는 선생님한테 더 고맙다고. 이걸로 인해서 이 사례로 인해서 여섯 건이나 자기네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례를, 이렇게 신청서 해줘 갖고 도와줬대요. 그렇게 되게, 고맙다고 오히려.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 친구한테도, 아니면 기관에도 되게, 아름다운 미담인 거죠.

이 외에도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서는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의 포용적인 태도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권한 이양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트라이앵글 사업을 지원하는 KDB의 포용적 접근은 현장 활동가가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일단은 저희 KD, 이게 트라이앵글 프로젝트가 KDB에서 지원하는 이제 자금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건데 KDB 나름대로 자체의 그런 방향이 현장에서 현장 활동가가 하는 그 상담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담당은 저 혼자였고 총괄하는 사업 계획서를 쓰고 결과 보고서 쓰고 하는 분은 따로 계시지만 이 집행하고 이 상담을 진행하는 건 저 혼자였기 때문에 거의 결정권이 있었다고 봐야죠. 예.

4) 주택물색도우미 대상의 확대

트라이앵글 사업은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보다 지역사회에 나와 생활하고 있

거나 이를 준비하는 청소년부모를 돕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기관에서는 주택 물색을 같이 하기보다는 물색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마련된 ‘주택물색도우미’가 장애인을 넘어 한부모가구 대상으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변경된 주택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청소년부모가 주거 가치로 언급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은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지원 과제였다.

그건 이제 본인이 구해요, 집은. 그래서 그것도 제안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주택물색도우미가 긴급, 그..., 러니까 최저주거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주택물색도우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LH에서 운영하는. 근데, 지금 이렇게 한부모까지 확장이, 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안을 좀 했, 이번에 처, 청와대 행정관이 대표님 만났을 때. 좀 어떤 거를 좀 제안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LH 주택물색도우미. 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안한 게 있어요, 최근에.

5) 멘토링 기반 통합적 사후관리

마지막으로 기관 담당자는 청소년부모는 자립을 위한 집중이 그 어느 대상보다 집중되어야 할 시기로 주거지원과 더불어 실제적인 고민 상담, 즉 심리 상담과 자녀 양육 상담 그리고 자녀 돌봄 지원, 진로나 취업에 대한 상담 등이 통합적으로 필요한 대상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기관에서는 현재 주거지원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충분히 체계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나름의 한계로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주거지원과 더불어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통합사례관리’가 청소년부모를 위한 온전한 지원체계로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기관 담당자는 주거보증금과 자녀 돌봄 지원 등은 정부 공공기관에서, 멘토링은 민간기관에서 담당하여 협력적 지원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희망하였다.

이 아름다운재단 청소년주거복지사업의 한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주거에 중심을 맞추고, 거기에 플러스통합사례관리는,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자원을 붙여서, 지금 통합사례관리도 같이 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멘토를 붙이려고 하는 이유. 요 세 개가 다 가야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온전한, 청소년부모, 어..., 그, 지원체계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같이.

제3절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기관 담당자와의 면담 조사 내용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원 대상자로서 청소년부모는 불안정한 경제활동 및 신용불량 상태인 자로서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이다. 제도적 지원대상이지만 이를 위한 필수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사회적 편견과 무시로 인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특성이 있었다. 대부분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어린 나이에 양육하는 자녀까지 두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 활동에 종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불안정한 거주지는 이러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었다. 이는 청소년부모를 면담 조사한 결과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높은 이자의 빚에 종속되거나 불안정한 계약의 좁고 비위생적인 집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소통 단절은 우울감과 고립감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부모를 위한 주거지원정책·사업의 방향은 이러한 대상자의 맥락적 특성을 먼저 세심하게 살피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물리적인 나이나 신체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닌 청소년부모가 놓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조건을 살피면서 이들의 사회생활능력을 판단하고, 기관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에서 드러난 청소년부모의 특성을 약화할 수 있는 지원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요구되는데, 주거지원은 사회적 인정의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민간기관에서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거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에게 생계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진입 요건을 만들어주고 전반적 삶의 개선을 도모하며, 무엇보다 이들이 정보 수혜자에서 전달자로 그 역할이 변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청소년부모 면담 결과에서도 그들은 주거지원을 통해 불안정한 주거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와 관계를 학습하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표현하였다. 결국 월세 걱정을 덜게 되면서 거주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자신과 자녀를 위해, 또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무언가를 해볼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는 아마티아 센이 ‘실질적 자유’로 정의한 ‘역량(capability)’ 과도 같다(Sen, 2013). 주거지원이 월세에서 전세로 물리적 환경을 이동시키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부모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을 운영해 나가는 선택과 행동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주거지원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 제공이라는 ‘복지적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으로서 안정된 삶을 위한 ‘토대 역량’을 확장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토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관을 넘어서서 청소년부모 대상의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체계가 더욱 요구된다.

셋째, 민간기관에서 청소년부모 대상의 주거지원사업을 하더라도 여전히 청소년부모 대상의 관련 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연하지 못한 제도적 기준과 더불어 외부 민·관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쉽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남아있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거지원제도가 있을지라도 주거지원을 문의해 오는 많은 청소년부모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아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청소년부모 면담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부분이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으로 디지털 정보 접근에 대한 소외계층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부모가 바로 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부모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지원제도는 그 일관된 규정 기준에 있어서 이들을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락시키고 배제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는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거주지를 배회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기도 했다. 따라서 청소년부모의 상황이 고려된 주거지원 자격 완화 및 이들을 위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의 관심 그리고 접근성이 높은 정보통합플랫폼의 개발 등이 필요해 보였다. 그리고 주거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부모의 삶 개선을 위해서는 주거물색도우미와 멘토링 기반의 통합사례관리 역시 요청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부모라는 주된 고려 대상에 대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민·관 담당자의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태도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의 요약 및 논의와 함께, 이를 참고하여 청소년부모 관련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주거지원사업을 경험한 청소년 부모를 통해 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소득 빈곤계층의 주거 문제 현실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주거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문재인정부에 들어서면서는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 아동을 포함한 가구, 주거취약계층, 고령자 등 주거복지 대상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청소년부모를 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나 생애단계별로 청년이자 신혼부부 그리고 소득 수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는 점, 그 밖에 한부모가정, 아동을 포함한 가구라는 점 등에서 복지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2019년도에 수행한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여전히 생계와 주거 문제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의 혜택이 청소년부모에게는 효과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그 효과를 경험하는 데 여러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주거복지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가 그런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돕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을 청소년부모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주거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기관을 통해 주거지원을 경험한 청소년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주거지원사업의 의의와 한계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내 주거복지로드맵이 청소년부모에게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

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중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로부터 주거지원 경험이 있는 이들을 연구참여자로 설정하였으며,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고 기관 담당자가 추천하는 10명을 선정하였다. 이들 중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인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 미혼모 8명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소년부부 2쌍이 포함되었다. 우선 국내 주거복지 정책 현황과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주거지원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관 실무자 및 주거복지전문가와 회의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면담 질문을 구성하였다. 면담은 연구자 2명이 각각 혹은 함께 진행하였으며, 주거지원 이전과 이후를 중심으로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은 합의적 질적연구방법(CQR)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연구자 2명이 면담 자료를 통해 기본 범주를 도출하고, 연구팀의 주거복지전문가가 평정자로, 기관 실무자가 감수자로서 최종 범주를 조정하고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부모들은 대개 임신·출산기에 주거지의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좁고 비위생적인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주거비 마련과 생계비 해결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소득 마련을 위해 일을 하게 되더라도 단기 계약직 생활밖에 할 수 없었고, 학업도 중단하게 되었다.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지인을 통해 주거 마련 방법을 살펴보다가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거지원으로 이들은 안정된 거주 기간이 있는 넓고 깨끗한 거주 공간을 얻게 되었다. 주거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들은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였고, 생활비를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재정이 늘어나면서 주거비 지출이 안정되어 이후 주거 마련을 위한 의지나 학업 지속 의지, 취업 희망 등이 형성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부모들은 주거지원 전후 물리적 환경에서 오는 변화를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부모들이 주거지원 전에 주로 좁고 비위생적인 원룸의 형태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관련되는데, 정부에서 수급한 비용 외에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소득인 상황에서는 월세가 높더라도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은 원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비교적 큰 액수인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주거지원사업은 이들이 월세를 낮추면서도 투룸 이상의 넓은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리모델링으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는 변화

를 경험하고 있었다. 주거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의 가정들이 아동주거빈곤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면서, 동시에 큰 액수의 보증금이 청소년부모가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자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청소년부모들은 주거지원 전후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경험하고 있었다. 청소년부모들은 대개 부모의 이혼 등으로 원가족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업을 중단하면서 제도 밖에 머물러 지내온 이들로서 성인 사회에 대한 불안, 사회적 무시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주거 문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호소하기보다 무시와 배제에 순응하게 하였고, 또한 이것은 좁은 원룸 안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 이웃과의 소통 단절 등으로 이어지며 심리적·사회적 고립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주거지원 연결은 심리적·사회적 고립을 푸는 열쇠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주거지원 이후 매월 월세 독촉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주 공간이 생겼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들 수 있다. 이는 주거지원을 통해 이들이 거주하게 된 곳이 공공임대주택이었다는 점과도 연관되는데, 안정된 거주 기간 확보와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갈등 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주거지원 후 안정된 주거 공간이 생겼다는 것은 양육 책임감 강화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무엇보다 애정적이고 허용적인 자녀 양육 태도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는 최근 아동학대가 빈곤가정에서 심화되고 그중 청소년부모의 가정이 주목받고 있는 점에서 단순히 아동학대를 위한 처벌 규정 강화가 아닌 이들의 심리적 문제와 주거 환경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청소년부모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부모들은 주거지원 이후 경제적 어려움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의 변화란 생계비 지출이 증가한 반면, 주거비 지출은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부모들은 대개 낮은 학력 수준으로 인해 단기 계약직 이상의 일을 하기가 어렵다. 또한 현재 어린 자녀 양육의 시급함으로 인해 근로 의욕이 감퇴되거나 취업의 기회를 유예하고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이나 한부모가정, 아동양육수당 등 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주거지원 전에는 수급비 안에서 비싼 월세를 같이 감당하느라 실질 생계비에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고, 원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대출을 통해 해결하고 빚이 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보증금 중심의 주거지원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줄고, 대신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하면서도 수급비를 실제 생계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은 청소년부모의 취업을 통한 근로 활동의 제한과 관련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력과 실무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안내되는 직업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애견미용사 등 몸으로 하는 노동과 단기 계약직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근로 활동이 거의 제한되면서 청소년부모의 경제활동은 더 어려워지기도 했는데, 이는 주거지원이 청소년부모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늘어난 생계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일자리 교육과 지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잉여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아닌 이들의 재능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교육이 동반될 필요가 요구되는 것이다.

넷째, 청소년부모들은 주거지원 전후 주거 정보에 대한 접근 능력이 강화되면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청소년부모는 대개 안정된 주거 마련에 대한 필요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맘카페 등을 돌아다니며 주거 정보를 탐색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같은 기관을 알게 되기도 하지만 스스로 행정기관에 문의할 때는 원활한 안내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안내를 받더라도 구체적인 절차를 이해하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적극적 시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이다. 혹은 부정확한 정보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자격을 이해하지 못해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주거지원은 구두로 절차 안내를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그 지원 과정에 밀착하여 수행하게 돕고 있었는데, 이는 청소년부모로 하여금 그들이 대상이 되는 주거정책과 그 유형에 대해 알게 되는 것과 더불어 그 과정을 학습하는 기회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기관이 아니고는 보편적 시스템으로서 행정기관과 복지기관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청소년부모를 위한 안전한 주거 정보플랫폼이 마련되고 교육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부모들은 주거지원 전후 사회적 무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었다.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었다는 것, 특히 미혼모의 경우에는 친부가 없다는 것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시선을 감수하는 것은 주거지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

님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주거지원을 통해 제도 내 공공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형식적인 사회적 인정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이라든지 이웃의 호의적인 시선 등 실질적인 인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의 이웃으로 인해 제대로 된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려동물과 거주하는 일부 청소년부모의 모습은 이러한 사회적 무시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는 나름의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부모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주거지원을 통해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이들을 위한 친화적 지역공동체의 마련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제2절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부모의 주거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부모를 위한 주거정책이 이들의 경험에 기반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국내 주거지원정책 중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개선안을 제안하고, 청소년부모가구의 특성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청소년부모가구의 주거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였다.

1. 기존 주거지원정책의 개선

청소년부모에 대한 임대주택 개선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청소년이라는 경제적·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한 정책일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부모를 위한 본인부담 보증금의 완화 및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요구되며,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와 임차급여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1) 전세임대주택의 본인부담 보증금 완화와 주택물색서비스 강화

먼저 청소년부모를 위한 본인부담 보증금의 완화와 함께, 보증금 없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보증금 지원을 통해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전세임대주택 공급은 그 외의 임대주택 공급보다 두 배 이상이면서 수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형이나 매입형 임대주택에 비해 입주 접근성이 높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은 본인의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지원 상한선에 맞는 주택을 찾지 못해 자신이 기존에 생활하던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에 원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도움을 전혀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전세보증금 지원 상한선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임대료와 거주 환경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 확대되어야 하겠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아동 포함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정책을 확대함에 따라, 청소년부모는 일반주택 전세임대주택 외에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등 신청의 선택지가 늘었다. 이뿐만 아니라 수급가구나 한부모가구와 같이 1순위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2%로 낮출 수 있게 되어 타 임대주택에 비해 접근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도 지역별 지원금의(보증금) 5%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수급가구 혹은 한부모가구에 보증금을 2%로 낮추는 것을 적용하는 것 또한 아동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최근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지역)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조사에서도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 1순위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60.3%)을 원했는데, 대상자의 11%가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기회가 있었지만 포기했다고 답했고, 그 이유가 ‘비싼 보증금’ 때문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청소년부모는 보증금 마련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가구의 경우, 일정 소득 기준까지는 보증금이 없는 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청소년부모는 전세임대주택 선정 이후 주택 물색에도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물색도우미’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와 임차급여의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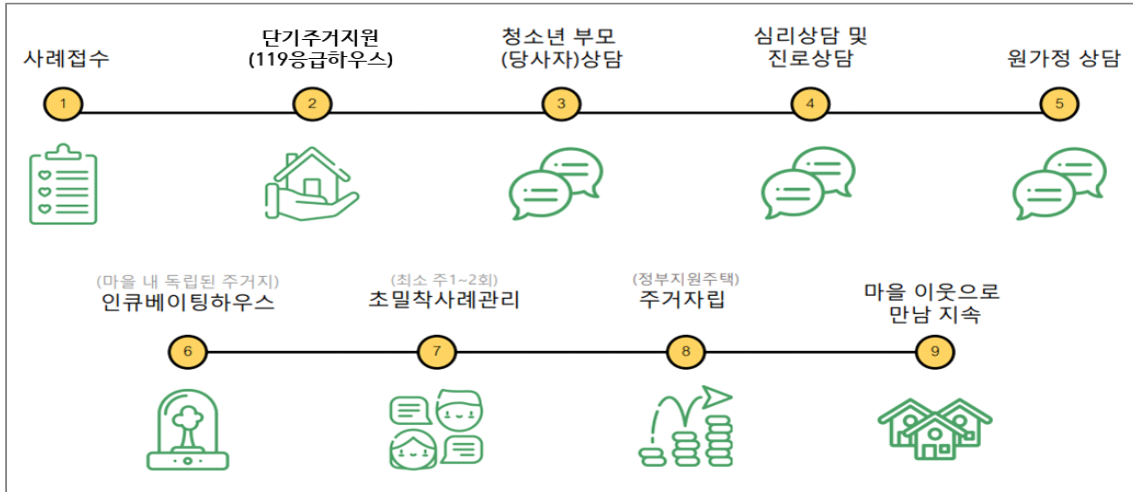
현재 국내 주거지원정책에서는 주거취약자에게 필요한 실제 임차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5%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가구원 중 1인만 일을 해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부모가구의 자녀 연령이 일정 정도가 될 때까지 특례를 규정하거나 소득공제비율을 높이는 것도 도입해 볼 만하다. 더욱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본 연구참여자들은 월 임대료로 월 3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오래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거주지와 주변 환경이 양육에 맞춤형된 안전한 환경이라 할 수가 없었다. 이에 거주 여건과 실제 입주자 상황을 고려한 임차급여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부모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본 연구참여자는 주거를 이전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녀 돌봄과 경제적 어려움 등 때문에 안정적인 장래를 계획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청소년부모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특성이 있다. 이에 청소년 부모의 각 가정을 위한 독립된 물리적 공간을 우선 제공하면서, 밀착된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청소년부모가구의 특성에 맞춤형 임대주택공급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형태가 서울시의 ‘지원주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도입한 지원주택은 조례 제3조 1항을 통해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를 입주 대상으로 규정하고 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해당자를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주택 입주 대상으로 청소년부모를 규정하고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겠다. 그 외에 청소년부모 연령을 고려할 때 지원주택 외에도 사회적주택의 공급도 고려할 만한 주거 지원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미자립가정지원 민간단체인 ‘킹메이커’에서도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통해 이와 유사한 청소년부모 대상의 주거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그림 VI-1]). 안정된 거주지가 없는 청소년부모의 임신·출산기에, 먼저 단기주거(119응급하우스)를 지원하는 데 근거리에 거주하는 사례관리자가 이들에 대한 밀착된 사례관리를 시작하게 된다. 출산 이후 적정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른바 ‘인큐베이팅하우스’를 통하여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함과 동시

에, 자기관리, 학업, 재무 등에 대한 지원을 받아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2019년 한해 총 8가구가 이 같은 과정을 거쳤으며, 밀착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 1:1 멘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출처: 청소년미자립가정지원 단체 ‘킹메이커’ 내부 자료

[그림 VI-1] 인큐베이팅하우스의 사례관리 과정

이와 같은 주거와 자립지원이 통합되면 청소년부모가구에 맞춤형 서비스제공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지역 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되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적정한 기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한 뒤 학업과 직업훈련, 취업과 고용유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하여 심리적·정서적인 지지와 아동이 포함된 데 따른 의료서비스 역시 수반되어 제공될 수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 근거리의 실무자가 입주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례관리 계획 및 실행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각 가구의 상황에 맞는 사례관리와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부모에게 필수적이었던 양육과 돌봄 지원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의 생애주기상 필요한 장래 설계를 위한 학업, 진로 지도, 취업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3. 주거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구축

청소년부모에게는 무엇보다 주거복지 정보를 찾기 쉬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청소년부모는 본인이 독립된 주거를 마련해야겠다고 자각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된다. 자신이 취약계층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조건을 갖춘다고 해도,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나 활용 가능한 주거비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취약계층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부모는 평소 주거정책이나 이에 대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청소년부모는 가장 먼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주거 정보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이홈포털사이트, 서울주거포털사이트, 전세임대포털사이트 등이 있는데, 해당 검색어를 알지 않는 한 이를 찾기도 어렵다.

또한 이때 공공임대주택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많은데, 편리하지만 청소년부모가 활용하기에 약점이 있다. 우선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기초수급자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에 대한 서류가 추가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서류 구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청소년부모와 같이 정보취약 가구의 경우, 행정복지전달체계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 2015년 「주거기본법」 시행 이후, LH가 마이홈센터를 설치하였고, 지자체마다 주거복지센터의 운영 혹은 설치를 계획하여 주거지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혹은 센터의 운영주체별로 정보제공 및 서비스의 양과 질에 있어서 편차가 크다.

이에 우선적으로는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같이 청소년부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 주거 지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온라인을 통하여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보와 이력 복지정보가 통합된 화면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담은 책자의 제공도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는 청소년부모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신청 방법과 절차 보증금, 이를 위한 정보 등이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적으로 비대면 활동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지영(2017). 양육자가 인지한 지역사회 및 주거 환경 특성과 유형별 아동학대의 관계. 보건 사회연구, 37(2), 41-71.
- 김소영(2020).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미국 첼시 포이어(The Chelsea Foyer) 사업의 5년간의 성과와 교훈. 사랑의열매 나눔문화 연구소.
- 김성경, 정민아, 김희성, 이경혜(2019).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원주택의 구성요소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 연구, 30(2), 59-88.
- 김혜승, 박미선, 천현숙, 차미숙, 김태환(2012).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연구(국토연 2012-36). 국토연구원.
- 국토연구원(2020). 2019 주거실태조사.
- 국토교통부(2020). 주거복지로드맵. <http://www.molit.go.kr>에서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2020). <http://www.law.go.kr>에서 인출.
- 국립국어원(2020).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에서 인출.
- 민소영, 남기철, 송인주, 서혜미(2019).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서울특별시의회.
- 은주희, 임고운(2019).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2019년 한국미혼모 지원네트워크 연구보고). (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이국희(2019). 사회적 배제, 반려동물 키우기,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탐색적 연구. 감성과학, 22(1), 3-14.
- 임세희, 이희주, 이창숙, 신진호, 손희경, 임은지(2020).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효과성 연구(연구보고 2019-1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정제형(2020). '청소년 지원주택의 필요성, 해외사례 및 법제 개정방안'. 청소년 지원주택 도입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SH서울도시주택공사·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주거환경교육연구회(2010). 주거 환경학총론. (주)교문사.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서울도시주택공사(2020). 청소년지원주택 도입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 최윤정(2019). 여성 한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정책연구, 19(2), 49-66.
-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5). 2005 사회복지사 해외연수보고서.
- 한국주거학회(2007). 주거복지론. (주)교문사.
- 허영태, 박춘성(2019). 반려동물이 아동·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국외연구를 중심으로.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3(3), 133-151.

- Doyle, K. O.(1992). The symbolic meaning of house and home: An exploration in the psychology of good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5(6), 790-802.
- Hill, C. E.(2012). 합의적 질적 연구: 사회과학현상탐구의 실질적 접근 (주은선 역). 서울: 학지사.
-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Jossey-Bass.
- Naude, A.(2009). The Chelsea Foyer at the Christopher at Five Years: Lessons in developing stable housing and self-sufficiency for homeless youth and young exiting foster care. New York. Common Ground Community and Good Shaphered Services.
- Sen, A.(2013). **자유로서의 발전** (Development as freedom). 김원기 역. 갈라파고스.

- Doyle, K. O.(1992). The symbolic meaning of house and home: An exploration in the psychology of good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5(6), 790-802.
- Hill, C. E.(2012). 합의적 질적 연구: 사회과학현상탐구의 실질적 접근 (주은선 역). 서울: 학지사.
-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Jossey-Bass.
- Naude, A.(2009). The Chelsea Foyer at the Christopher at Five Years: Lessons in developing stable housing and self-sufficiency for homeless youth and young exiting foster care. New York. Common Ground Community and Good Shaphered Services.
- Sen, A.(2013). **자유로서의 발전** (Development as freedom). 김원기 역. 갈라파고스.

연구진

연구책임자 은주희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전문위원, 교육공학박사)

공동연구원 임고운 (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 초등교육학박사)

공동연구원 김선미 (서울시 성북주거복지센터 센터장)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 경험 분석


2020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처: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주소: (03965)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2길 41 유니온빌딩
301호

연락처: 02-720-5007

※ 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2020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The Beautiful Foundation